

석사학위논문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중학생을 대상으로 -

2018 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김 경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중학생을 대상으로 -

Research to Improve Logical Expressiveness by
Using Novel Text

2018 년 6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김 경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중학생을 대상으로 -

Research to Improve Logical Expressiveness by
Using Novel Text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6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김 경 선

김경선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6 월 일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김 경 선

본 연구는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적 표현 능력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서술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성된다. 학습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논리적 사고가 신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력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수행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학습자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필요한 능력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논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논리적인 글쓰기가 효과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논리적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꾸준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육 여건과 학습자들의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위한 교수 방법이 충분히 개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능동적인 글쓰기 능력이 요구되는 교육 현실 속에서 글쓰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학습자들의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킬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중학교 학습자들의 실제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중학교 학습자가 사회현상에 주목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이 이 세상의 모든 사회 현상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설은 현실의 반영이다.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사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글을 살펴 본 결과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설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용 생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떠한 주제로 글을 써 내려갈지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표현 방법을 모르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서술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 단계를 ‘소설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 ‘소설 텍스트의 수용과 전이’, ‘논리적 텍스트 생산’으로 나누었다. ‘소설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 단계에서는 소설 읽기 교육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소설 텍스트의 수용과 전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이를 내면화하여 어떠한 내용을 논제로 삼을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텍스트 생산’ 단계에서는 글의 각 구성요소를 문단 형식을 갖추어 논제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소설 텍스트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정해져 있는 논제에 답을 쓰는 일반적인 논술 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글쓰기 경험이 반복됨으로써 논리적 표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논리적 표현 능력, 소설 읽기 교육, 주장하는 글, 글쓰기 과정, 쓰기 교육, 자기화, 문단 쓰기, 논증 방법, 패턴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3
1.3 연구 내용 및 방법	17
II. 학습자들의 글쓰기 실제와 문제 양상	19
2.1 정보 파악의 측면	19
2.2 내용 생성의 측면	26
2.3 논리적 표현의 측면	30
III.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지도 단계	36
3.1 소설 텍스트 분석과 이해	41
3.1.1 정보 파악하기	41
3.1.1.1 인물과 배경	41
3.1.1.2 사건과 갈등	42
3.1.2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	45
3.2 소설 텍스트 수용과 전이	49
3.2.1 문제 상황 인식하기	49
3.2.1.1 문제 상황 발견	49
3.2.1.2 가치 발견	50
3.2.1.3 입장 정하기	51
3.2.2 자기화하기 지도안	51
3.3 논리적 텍스트 생산	56
3.3.1 내용 조직하기	56
3.3.1.1 개요 짜기	57
3.3.1.2 문단 쓰기	60
3.3.1.3 패턴 활용하여 논증하기	62
3.3.2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	67

IV. 지도방안 적용결과 분석	70
V. 결 론	81
참 고 문 헌	84
ABSTRACT	89

표 목 차

[표 1] 글 구성의 오류 종류와 정도	34
[표 2] 사건의 층위별 갈래	43
[표 3] 소설의 요소와 층위	44
[표 4]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	47
[표 5] 기본 정보 읽기 활동지	48
[표 6] 자기화하기 지도안	54
[표 7] 자기화하기 활동지	55
[표 8]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7가지 패턴	63
[표 9] ‘패턴’이 활용되고 있는 작문 교육 이론서와 교재	64
[표 10]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	68
[표 11] 내용 조직하기 활동지	69
[표 12] 논리적 텍스트의 평가 기준	70
[표 13] 예시 글 4-1 평가표	73
[표 14] 예시 글 4-2 평가표	77
[표 15] 예시 글 4-3 평가표	79

그림 목 차

[그림 1]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유형	38
[그림 2] 마인드맵 작성 순서	53
[그림 3] 주장하는 글의 유형	58
[그림 4] 과제 해결형 논제의 답안 구성	59
[그림 5] 다이아몬드 글쓰기의 기본 구조	61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현대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더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었고, 이에 따라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재로 평가하기도 한다.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은 학생들이 학습을 수행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도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논리적 표현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발현된다. 논리적인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논술 교육의 한 방편인 문제해결 글쓰기는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 해결 글쓰기의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현안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관점을 지녀야 문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나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독자에게 설득시키려면 논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논리적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와 같은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국어과 교육과정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토의와 토론 활동을 하고, 쓰기 영역에서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형식을 배운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시간적 제약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토의와 토론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다뤄지기 어렵고, 쓰기교육은 결과 중심의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표현 능력이 신장되기 어렵다.

교육 여건이 이러하다 보니 논리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술 교육은 논술 교재에 제시된 논제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의 반복은 제시문의 답습 수준에 그칠 뿐 글을 쓰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글쓰기로 이행되지 못한다. 논술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막상 한 편의 글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면 난감해 한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 쓰기는 했지만 글의 목적에 맞게 잘 쓴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학생 등 글쓰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학습자들에게 수행평가와 독후활동이라는 글쓰기 과제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원인은 꾸준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동적인 글쓰기 훈련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란(2008)은 또 다른 원인으로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습 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한다. 김미란은 최근 과정 중심 수업 모형을 본뜬 수업이 많아졌지만 과정과 과정의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단계나 과정을 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재의 글쓰기 수업을 반성하고, 수업 목표와 수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글의 형식 배우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내용을 생성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교 학습자가 사회현상에 주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독자를 설득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여 현안문제를 파악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소설 텍스트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사회·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이 반영되고, 인간의 삶과 더불어 시대 현실을 담고 있다. 학습자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사건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갈등의 해결과정을 보며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소설 텍스트

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논술 교육이 제시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라면 본고에서 제안하는 논리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은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여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 학습자가 논제를 선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소설 텍스트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2015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소설을 읽을 때 갈등의 진행과 갈등의 해결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 즉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배운다. 이뿐 아니라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습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해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으로 전이 되고 이를 내면화하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이러한 문학 교육이 지식 전달 수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설 텍스트를 읽고 적용해보는 훈련으로 나아갈 때 문학 활동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상술 하듯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문학 활동은 학습자의 논리력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학습자의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킬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살펴볼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소설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이다. 먼저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교육 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 볼 것이다.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는 소설 제대로 읽기를 전제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소설 읽기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2.1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소설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의 논의는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는 논술 지도의 교육 원리, 문학 텍스트 활용의 유용성,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교수-학습 방안 제시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전옥경(2005)은 소설을 읽으면서 문학이 지닌 형식과 내용에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소설은 다양한 층위의 인간의 삶을 탐구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체험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준다. 소설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문학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지적한다. 국어과 문학 교육의 한계점은 작품 수록 범위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다는 점, 감상 활동이 단답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개별 텍스트를 ‘사고하며 읽기’ 그리고 ‘쓰기’ 단계 즉 비평적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평적 텍스트 생산은 천편일률적인 감상문 쓰기에서 벗어나 문학의 이해, 감상, 평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평적 에세이 쓰기 과정을 ‘텍스트 분석하기-주제정하기-쓰기-평가 및 정리’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도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쓰기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

김명순(2008)은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확대와 자기교육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습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

고, 소설 속에서 전개 되는 현실을 우리들의 현실과 비교·대조하며 비판해 보기도 하며,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충실하게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질문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완결된 글을 쓸 것을 요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습자의 생각을 촉진시키는 질문을 교사가 제공해 줄 때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거나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미옥(2009)은 소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실험집단의 문제해결력은 비교집단에 비해 전체적인 문제 파악 능력, 결과 산출 능력, 결과 검토 및 평가 능력에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

소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첫째,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소설 속 인물의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고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은 문제 탐구 능력이 신장 되었고, 이는 일상적 삶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효과로 이어진다. 셋째, 문제해결 과정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활동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국어과 문제해결 학습이 글 쓰기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제안하였다. 학습자가 한 편의 논리적인 글을 완성하지 못하고 교사가 제안한 학습 과정 안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아쉽다.

최미혜(2010)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논술 지도가 논술에 대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문학 교육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전통적인 논술지도 방법으로는 지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해 보고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 논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김지은(2009)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논설문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문학 독서를 활용한 논설문 쓰기 지도를 제안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논설문 쓰기 학습활동의 문제점은 학습자의 흥미유발이 어렵고, 학습활동을 단순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활용한 논설문 쓰기는 계획 단계에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문학 텍스트 읽고 이해하기-논제 찾기’, 논술 단계에서 ‘논거 만들기-논거 조직하기’, 평가 단계에서 ‘교정하기-발표하기’ 순으로 지도계획을 세웠다. 이 지도안은 문학 독서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고,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술문의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김태순(2007)은 선행연구를 통해 동화 텍스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리적 글쓰기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학습자는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로 동화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논술문 쓰기 또한 과정 중심의 글쓰기로 이루어져야하며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배경지식 활성화-동화텍스트 읽기-동화텍스트 이해하기-초점화 된 자유롭게 쓰기-토의, 토론하기-개요 쓰기-논술초고쓰기-고쳐 쓰기’ 이를 학습 현장에 적용하여 결과 중심의 논술문 쓰기 지도에 비해 논술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시사했다.

조선(2010)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논술 교재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교과서를 활용한 논술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문학 제재는 흥미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 논술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글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채송화(2009)는 문학 작품이 논술에서 제시문만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문학 비평 장르의 경우 논술에서 지향하는 글쓰기의 목표와 방법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문학 비평은 비판적 글쓰기나 해명적 글쓰기에 가깝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문학 작품을 활용한 논술 지도는 논술이 평가의 도구로 한정되지 않고, 논술 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제시문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과정중심쓰기 이론에 따라 문학 논술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김윤지(2013)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통합형 논술 교육을 제안한다. 여기서 통합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 활동의 통합은 물론 문학의 통합까지 포함한다. 문학 텍스트는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고,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문학을 활용하면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술의 목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데에 부합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논술 교육 방안은 ‘읽기-토론-쓰기’의 3단계 통합 교수·학습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적 의미 구성, 사회적 의미 재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손경애(2010)는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문학 논술을 제안했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무비판적인 수용의 위험성이 제기되며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비판적인 사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국어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는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주체의 사고에 작용하며 형성된다. 독자는 문학을 감상하면서 끊임없는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등장인물에 주목해야 하는데, 인물이 사태에 대응하는 행동, 가치관, 태도 등은 비판적 사고력을 위한 좋은 제재가 된다는 것이다. 문학논술의 방향과 교수-학습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자는 입시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현재의 논술 교육을 비판하며 다양한 사고를 위한 매개체로 문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송수민(2012)은 현재 문학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그것을 보완할 지도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학교육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문학을 활용한 논술지도방안을 제시했다. 6차 교육과정 이전의 문학 교육은 ‘감상과 이해’가 핵심이었는데 이는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이 되어 7차 교육 과정 이후부터 ‘수용과 창작’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

러나 ‘감상과 이해’, ‘수용과 창작’이라는 교육 원리의 문제라기보다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체제에서 그 교육적 효과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논술 교육은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도 힘써야 하는 학교 교육 목표와도 일치된다. 논술 교육과 문학 교육을 접목하면 현재 문학 수업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리(2018)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활동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연구자가 설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글쓰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구안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문학을 활용한 글쓰기가 학습자에게 접근이 용이해 글쓰기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과 문학 텍스트는 현실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지도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교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연구자가 마련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시된 질문들은 사고와 분석을 요하지 않는 질문들이 많았다. 아직 학습자들이 능숙한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은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수업의 반복은 능동적인 읽기 능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교사의 질문지를 활용한 수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학습자가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술 교육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대학 입학시험에 논술 시험이 도입된 후 논술 교육이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은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쉽다. 따라서 제시된 논제에 대

한 답을 찾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고, 그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주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논리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입시생이 아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신장은 대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성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읽기·쓰기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언어 운용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 필요하다. 김동환(2018)은 학습자들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소설 텍스트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설 장르에 대한 이론 개념을 제대로 습득하여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여 비평적 능력을 갖추려면 소설의 이론 개념들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문학 교육에서는 소설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설의 이론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동환, 2018, p.85) 그렇다면 현재 소설 읽기 지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2.2 소설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소설 읽기의 지도 방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도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소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지원(2008)은 갈등 중심의 소설 읽기 지도방안을 제안하였다. 소설 속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습자 스스로 모색하면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생산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모형을 제시하였다.

성혜정(2004)는 작중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읽기 단계를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로 나누었다. 인물은 소설 속에서 삶을 이

끝어 나가는 존재로 소설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인물 유형을 분류하여 인물과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서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내면화하는 작업을 통해 학습자의 바람직한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면화를 위한 읽기 후 활동은 시 쓰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편지 쓰기, 만화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향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답형식의 문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설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인물의 갈등,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요구된다. 문학 교육의 내용 체계에는 ‘수용’과 ‘창작’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해와 감상에 치우쳐 있다. 읽기와 쓰기 영역이 그러하듯 수용과 창작도 고르게 지도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연순임(2011)은 수행평가를 활용한 소설 읽기 지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소설 교육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분석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현재의 소설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수행평가를 실시할 지도 방법으로는 ‘책 소개하기-독서 학습지 풀기-더 생각해 보기-그 외 적절한 독후 활동 병행’을 순으로 제시하였다. 눈여겨 볼 점은 3단계인 ‘더 생각해 보기’인데, 이 단계는 심화단계로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인물의 행동 평가하기, 인물들의 갈등 관계 파악하기, 갈등의 원인 찾기, 소설 속의 삶과 실제의 삶 비교하기,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 찾기 등 소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통해 작품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소설 이론을 배웠다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박현아(2008)는 소설 읽기 지도 과정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설 읽기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밝혀내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학습자의 실질적인 읽기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작품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은 문학 교육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교사의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을 읽는 과정

에서 질문의 제시 순서는 소설 읽기 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연구자는 사고의 과정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나누고, 읽기의 단계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질문의 유형으로 연결 시켜 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 비평적 질문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의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본 연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은영(2014)는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 읽기 능력 지도 방법을 제안한다. 주변적인 사건에서 중심적인 사건을 읽도록 하는 지도, 표층 사건에서 심층 사건을 파악하는 지도, 갈등에서 잠재된 갈등을 파악하는 지도, 초점화 및 인물이 형상화된 방식에 맞게 사건의 의미와 줄거리를 파악하는 지도로 나아간다. 학습자가 소설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득 과정에서 얻게 된 문학 능력을 소설을 읽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설 읽기 지도 방안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소설 교육은 문학을 통한 성찰이라는 목표 아래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지향하고 있었다. 성혜정(2004), 최지원(2008), 박현아(2008), 김은영(2014)은 소설 이론을 중심으로 한 읽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자들이 제시한 지도안이 교육 현장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읽기 지도안의 모형을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했을 때의 효과와 개선할 사항 혹은 보완할 점을 찾아볼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또 다른 목표는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소설 읽기 지도에만 머문다면 문학 능력이 향상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설 읽기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까지 나아가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논리적 텍스트 생산 단계의 쓰기 활동 지도안을 마련하기 위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2.3.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

먼저 살펴 볼 연구는 읽기와 쓰기 통합교육의 연구 흐름과 통합 교육의 유용성을 제기한 연구이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이 쓰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일 먼저 살펴볼 연구는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안 연구이다.

김명순(2004)은 독서와 작문 통합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작문 통합 교육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독서와 작문을 통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통합의 개념을 밝히고, 통합 지도가 어떤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 구체화 하였다. 통합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전에 기대할 수 없던 교육적 의의가 충분해야 함을 시사하고, 각각의 독서 능력이나 작문 능력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읽고 쓰는 능력이 신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혜정(2004)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이 단순히 평행적 결합으로 통합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의 어떤 거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지과정의 통합이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읽기는 곧 쓰기가 내재되고 이는 곧 필연적으로 쓰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읽기를 중심으로 한 읽기와 쓰기 통합 활동 모형을 제안하며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최숙기(2012)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 학습 방안을 탐색하였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80년대 이후 통합 교육의 연구 흐름을 읽기와 쓰기의 인지적 관계 탐색,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안 탐색,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효과 등으로 분류하였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나 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의 근거나 주요한 단위, 통합 지도 방향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실천적이 차원에서의 통합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통합 지도의 중점이 되는 영역과 이를 보완하는 영역 간의 주요한 관계를 토대로 방향을 설정한다. 이는 읽기를 위한 쓰기 모형, 쓰기를 위한 읽기 모형, 읽기와 쓰기의 상호 작용 모형이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읽기와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읽기와 쓰기는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읽기와 쓰기는 통합적으로 학습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김우영(2010)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독서 감상문과 논술문이라고 하였다. 독서 감상문은 장르의 특성상 지나치게 신변화 되고 교훈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한계를 지녀 논증적인 글쓰기 연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후 감상문을 논술과 연계하여 두 장르의 글쓰기 사이에 독후비평문을 설정한다. 독서비평문은 논리적인 성격을 가져 작문이론에 적합하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성과 요구를 모두 반영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독서, 작문, 논술 능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읽기와 쓰기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설 텍스트를 읽고 그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능력인 논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형래(2006)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수 학습이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도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통합 교수 학습은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합 교수 학습의 논의에서 ‘교과서’와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과서 요인’과 ‘교사 요인’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탐구하고, 읽기 쓰기 통합 교수 학습을 위한 전략을 찾는다. 그러면서 읽기와 쓰기 기능이 동시에 신장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읽기 활동과 관련된 쓰기 장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했다는 것이다. 읽기는 스키마를 풍부하게 하고 그것은 쓰기의 원천이 된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쓸 때, 어떤 장르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에서 소설 텍스트를 읽고 글을 쓰기 위해 선택한 글의 장르는 설득하는 글이다. 글의 논리성은 학습자들이 쓰는 모든 글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설득하는 글이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설득하는 글을 상위 범주로 보고 글의 목적에 따라 그 하위 범주로 다양한 글의 형태를 제시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하위 개념과 명칭이 교육환경에 따라 주장하는 글, 논설문, 논술문, 논증적인 글, 문제 해결 글쓰기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 김현미(2013)는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용어를 변별하고 위계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 주장, 근거를 포함하는 글이고, 논증 요소까지 포함하는 글을 설득하는 글로 변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장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은 학습자의 쓰기 능력 단계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문학 활동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읽기와 더불어 쓰기 활동까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능동적인 읽기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능동적인 쓰기 능력 또한 요구된다. 그렇다면 능동적인 쓰기 능력을 향상 시킬 지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은영(2010)은 학생들의 논리적인 글쓰기의 내용 조직과 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내용 조직은 논리적인 글쓰기의 글의 형식, 글의 순서, 문단 형식, 문단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표현 양상은 문장의 길이, 문장의 호응, 띄어쓰기, 맞춤법, 묘사의 사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용 조직 면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글의 구조는 잘 갖추고 있지만 글의 순서와 문단 형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 하였다. 표현의 면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길고, 문장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논리 정연한 문장보다는 문학적인 묘사가 많았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있어 쉽게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하였다.

소윤희(2013)는 교육과정의 논증적 글쓰기 지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논설문 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증적 글쓰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용생성, 내용조직, 표현단계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논증적 글쓰기에 앞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장 문장과 근거를 찾는 학습을 하고,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한다. 이를 논증식 도식을 활용하여 글을 조직한다. 내용생성 단계에서는 근거 생성 전략을 활용하고 내용조직 단계에서는 논증 도식을 활용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을 표현한다. 교사의 능력의 따라 글쓰기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박지윤(2013)은 요약하기 전략 학습이 논술문 쓰기와 고쳐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요약하기 전략은 쓰기 단계 중 고쳐 쓰기 단계에 활용되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쓴 논술문을 점검하는 것이다. 먼저 논술문의 각 문단별 소주제문을 도출하고, 요약한 소주제문과 논술문 개요를 비교하여 글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쳐 쓴다. 실험 결과 전략 없이 고쳐 쓰기를 하는 것 보다 요약하기 전략을 적용해 고쳐 쓰기를 했을 때의 평가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내용 영역에서는 논리적인 근거 부족 문제를 발견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첨가하고, 조직 영역에서는 서론과 본론을 명확하게 하여 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었고, 표현 영역에서는 문장을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였다고한다. 요약하기 전략 학습은 글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논술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 연구는 평가자가 아닌 학생들이 첨삭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을 수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요약하기 전략 학습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방식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 과정에 주목한다. 그러나 탄탄한 글의 구조를 갖추려면 문단 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흡해 보인다. 쓰기 교육에서 문단 쓰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정화(2011)는 문단 쓰기를 중심으로 ‘전략적 개요 짜기’를 활용하여 논술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개요 짜기 조직도’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에 따라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쓰는 부분으로 고안했다. 1단계 ‘개요 짜기 조직도’에서 중심문장을 쓰고, 2단계에서 뒷받침 문장 써서 ‘개요 짜기 조직도’를 완성한다. 3단계에서 ‘개요 짜기 조직도’의 내용을 옮겨 한 편의 논술문

을 완성한다.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한 결과 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배기범(2013)은 논증 도식과 반박 학습이 논증식 글쓰기에서 글을 풍성하게 하고, 논리적인 면과 체계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 논증 도식은 어려운 용어 대신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명명하였다. 논증 도식은 열쇠와 자물쇠 찾기(인과 도식, 귀납적 예시 도식), 내 안경 쓰기(설명적 예시 도식, 비교 도식), 내 편 찾기(권위 도식), 신발 찾기(유추 도식), 어깨동무(반대 도식), 내 땅 만들기(포함 도식)로 제시하여 실제 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인과도식을 활용하여 논증식 글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논증 도식을 활용한 글이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흥미(2017)는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할 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술적 텍스트 즉, 에세이 쓰기에 활용할 패턴으로는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과 설득 패턴’의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이러한 패턴을 활용하여 논지 전개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한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논지를 전개하는 실제적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학습 대상은 다르지만 쓰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연구라는 점과 논리적인 글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깊다. 또한 패턴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글쓰기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이 연구가 패턴 활용을 위한 글쓰기 전략을 제안했다면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적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킬 지도 방향과 구체적인 지도 방법·전략을 이해하게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논문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할 때 학습자에게 접근이 용이하

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읽기·쓰기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효율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되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발견·인식하여 글의 주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자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문단쓰기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방법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지도 방안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고, 문학 텍스트가 글쓰기에 활용되고 있는 양상과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 이점을 알아 볼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문학의 갈래 중 소설 텍스트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소설 텍스트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소설 텍스트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쓰기 지도의 연구 경향을 검토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II장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비평문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글쓰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찾아 볼 것이다. 중학생들의 실제 독서 비평문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글을 정보 파악의 측면, 내용 생성의 측면, 논리적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독후 활동은 대상 텍스트를 바탕으로 내용이 생성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해석이 관건이다.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생성한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은 생성한 내용이 독자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글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논리적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 훈련할 글의 범위를 설정하고,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첫 단계는 소설 텍스트 분석과 이해 단계이다. 소설 텍스트 분석과 이해 단계에서는 소설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파악하여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소설 텍스트 수용과 전이 단계이다. 텍스트의 이해가 포괄적인 것이라면 텍스트의 수용은 선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용과 전이 단계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이해한 후 수용하면서 발견한 문제 상황을 내면화 하여 쓰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화 하기 지도안’을 구상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논리적 텍스트 생산 단계이다. 논리적 텍스트 생산 단계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화한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을 마련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학습자에게 적용하여 작성한 글을 살펴볼 것이다. 평가 기준을 세우고 평가 기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글을 평가 한 후 지도 방안의 성과를 밝힐 것이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지도 방안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Ⅱ. 학습자들의 글쓰기 실제와 문제 양상

학습자들의 글쓰기 실재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 볼 글은 중학교 1-3학년 학습자들의 독서 비평문이다. 독서 감상문이 책을 읽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은 정서 표현의 글이라면 독서 비평문은 책을 읽고 난 후의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글이다. 독서 비평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논리력을 알아보기 위해 소설 텍스트를 읽고 독서 비평문을 써 올 것을 요구하였다.

독서 비평문을 작성한 학습자들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학교인 서현중, 보평중, 매송중, 이매중 학생 17명, 서울시 도봉구 소재 중학교인 창일중, 신방학중 학생 15명으로 모두 32명이다. 서울과 경기권의 6개 학교 학생들의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학생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비문학 텍스트보다 소설 텍스트를 선호하였고, 쓰기 과정에서도 부담을 덜 느꼈다. 서사적 이야기가 주는 즐거움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문학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글을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글에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을 정보 파악의 측면, 내용 생성의 측면, 논리적 표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글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2.1 정보 파악의 측면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차적인 원인은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려면 소설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소설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문제 상

황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구조 등을 파악해야 한다. 소설 읽기 과정에서 소설의 핵심요소를 찾지 못하면 소설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목적인만큼 첫 단계에서 소설 텍스트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문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글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봄봄>

이매중2 김*재

①주인공은 점순이와 약혼하게 되는데 약혼 상대인 점순이가 남들보다 성장이 늦어 ②키가 작아 걱정이다. ③장인이 이상하게 대해서도 주인공은 챙길 듯 안 챙길 듯 하다가 결국 챙겨준다.

④주인공이 너무 멋지다. 촌데레 같고 하는 것이 너무 귀엽다. 곰같이 생겨서 토끼처럼 생긴 점순이를 매일 지켜주는 걸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정보 파악 측면의 예시 글 1-1]

[예시글 1-1]의 학습자는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①의 주인공 ‘나’가 점순이와 약혼을 하게 된 배경이 드러나지 않았다. ‘나’를 데릴사위로 들이면서 점순이와 혼례를 약속한 장인은 몇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일만 시키며 점순이가 다 자라지 않았다는 핑계로 혼례를 미룬다. ②에서 ‘나’가 ‘점순이의 키가 작아 걱정’인 이유에 대해 인과 관계를 밝혀 주었다면 주인공의 갈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③에서 ‘나’와 장인과의 갈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인물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④인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인과 갈등을 겪지만 몇 해를 속고도 내년 봄이면 혼례를 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에 결국 다시 일하러 나간다. <봄봄>을 읽은 독자라면 이 학습자의 글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학습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

서현중2 진상*

①학교에서 돌아온 경환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비를 잡는데 바우가 그 나비를 놓아주며 시비를 걸. ②참외밭을 망가뜨리면서 나비를 잡아 싸움. ③나비를 잡아 주라고 해서 체면 때문에 집을 나가려다 대신 나비 잡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뛰어감

④바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비를 걸지 않았더라면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보 파악 측면의 예시 글 1-2]

[예시글 1-2]의 학습자도 ①경환이와 바우라는 인물의 특징, 경환이와 바우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두 인물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경환이와 바우는 같은 소학교를 다녔지만 바우네 형편이 어려워 경환이만 서울의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경환이는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동물표본 숙제를 한다며 나비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고, 바우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②바우는 마침 근처에 날아온 호랑나비를 잡게 되고, 그것을 본 경환이는 나비를 달라고 조르지만 경환이가 못마땅했던 바우는 나비를 놓아준다. 화가 난 경환이는 바우네 참외밭을 망쳐놓았고, 경환이와 바우는 싸우게 된다. 이 사건으로 바우 아버지는 경환이네 불려가게 되는데, 바우의 아버지는 경환이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라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돌아온다. ③내년부터 경환이네 땅을 부칠 수 없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아버지는 경환이에게 사과하고 나비를 잡아 주라고 하게 된다. 바우는 경환이에게 나비를 잡아 주라는 아버지가 미워 집을 나가려다 자신을 대신해

나비를 잡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달려간다. 바우가 경환이에게 나비를 잡아 줘야하는 이유와 바우와 아버지가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이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④영똥한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난 이대〉

서현중1 윤찬*

만도는 전쟁에서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이다. ①만도는 예전에 굴을 파던 중 다이너마이트 장치와 공습 때문에 팔 하나를 잃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차에서 내렸다. ②그는 다리 하나가 없었다. ③아버지와 진수는 술을 마시러 갔다. ④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지나가기 힘든 길에 나오자 만도는 진수를 업고 갔다.

⑤몸보다 중요한 게 가족과의 사랑이다.

내가 만도였어도 다리가 잘린 아들을 보고 속상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도 팔이 없어 다리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정보 파악 측면의 예시 글 1-3]

[예시 글 1-3]의 〈수난이대〉는 작품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각각의 인물이 겪은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만도가 겪은 일은 태평양 전쟁이 배경이고, 진수가 겪은 일은 한국전쟁이 배경이다. ①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되어 남양군도의 한 섬에서 산허리에 굴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한쪽 팔을 잃게 된다. ②진수는 징병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수류탄 쏘가리를 맞고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온다. ③다리 한쪽을 잃은 채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본 만도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주막으로 향하고, 아들은 힘겹게 그 뒤를 따른다. 아들이 멀쩡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만도와 불구가 되어 돌아온 진수의 만남으로 갈등이 드러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곧 해소된다. 만도는 다리 없이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는 진수를 위로하고 그들 앞에 놓인 외나무다리를 협력하여 건넌다. 소설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간추렸다면 ⑤ ‘몸보다 중요한 게 가족과의 사랑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 했을 것이다.

정보 파악의 측면에서 살펴본 예시 글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을 때 소설의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소설 텍스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부족, 소설 텍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 부족, 소설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역량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설의 구성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물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건과 갈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두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 텍스트에 따라 주목해야 할 요소가 상이한데 학습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 이유는 앞에서 파악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텍스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인물은 일정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건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때 사건과 갈등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중심 사건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인물이 갈등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비교적 주제가 명확한 동화를 읽다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소설 텍스트를 접하면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소설 읽기의 흥미를 잃는다. 소설 이론 수업이 자칫 지식 전달 수업이 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설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설은 어렵다는 인식으로 소설을 멀리하게 되고, 예시 글과 같은 글이 계속해서 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설 이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

기되었다. 김명순(2008)은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이 수용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문학의 미적 구조를 도외시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신비평과 구조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비평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 교사 중심 수업이며 지식 전달 수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작품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학 활동은 구성주의 이론에 따라 텍스트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신비평과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순임(2011)은 소설 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과서의 실린 문학 갈래 중 가장 선호하는 갈래를 고르라는 질문에 50.34%의 학생들이 ‘소설’이라고 대답하였다.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한 대답은 ‘나와는 또 다른 삶을 맛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9.34%로 나타났다. 소설이 재미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74%,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 24.53%였다. 소설 이론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소설의 구성 단계’가 38.3%, 소설의 구성요소가 17.87%, 소설의 시점은 12.34%로 대답하였다. 이에 소설 이론 학습 방법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소설 작품을 읽으면서 이론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김동환(2018)은 소설 교육에서 개념 학습이 문학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 없이 이루어지는 소설 교육은 오히려 학습자의 잠재적인 문학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소설은 치밀한 계획과 전략 아래 이루어지는 글쓰기이다. 그렇다면 그 수용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텍스트 수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김동환, 전개서, p.45)

그렇다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소설 읽기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어과 문학영역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초등 과정에서부터 문학 교육을 통해 소설 텍스트의 구성요소를 배우고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를 보면 문학은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

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품에 형상화된 세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감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물, 배경,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 3-4학년 성취기준을 보면 서사갈래나 극 갈래의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보다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인물과 사건의 관계, 사건과 배경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육하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적용하여 내용을 이해한다.(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중등 교육과정 문학교육에 이르면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진행과 갈등의 해결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인물의 행동과 가치관을 공감적·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갈등과 정서를 이해한다. 또한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사건 등을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면 창작 의도가 무엇인지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이처럼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일차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5-6학년의 문학 교육 성취기준을 보면 개념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보면 개념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가급적 배제하고 문학이 자아 성찰과 지적·정서적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 방법 또한 문학의 개념적 지식 보다는 문학을 즐겨 감상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되어있다.(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이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교육에서 소설 텍스트를 읽기 위한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설 읽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고 작품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 학년별로 다루는 문학 텍스트의 난이도가 다르고, 학습자 개인별 독서력이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습한

개념을 토대로 소설 읽기 경험이 반복되어야 능동적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2.2 내용 생성의 측면

소설 텍스트의 핵심요소를 찾아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였다고 해서 내용을 생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는 텍스트의 여러 사건들 중 중심 사건을 찾고, 사건과 갈등의 인과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소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발견해야 한다.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대상 텍스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가 생성한 내용이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가의 토토〉

보평중2 송*영

초등학교 1년 만에 ①문제아로 낙인찍힌 토토는 엄마와 함께 도모에 학원을 가게 된다. 도모에 학원에선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 수 있었고 알몸으로 수영하기, 리드미크 수업, 농부 선생님과 수업하기처럼 자유롭고 흥미로운 수업을 했다. ②토토는 도모에 학원에 빨리 적응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토토의 친구 야스야키와 소중한 반려견인 로키가 죽었다. 그리고 토토는 피난열차를 타고 도모에 학원을 떠났다.

우선 도모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다. 왜냐하면 도모에 학원이야말로 ③아이들의 순수함, 자유로움, 개성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진정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 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작곡, 청음 공부, 수학 토론 수업은 전혀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④특목고, sky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만을 열망하는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공부를 잘 하는 것’도 단지 수많은 특기와 소질 중 하나일 뿐인데 왜 그렇게 학교들은 ‘공부’만을 강조하는지 좀 답답했다. ⑤말로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고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는 학교도 태반인 것 같다. ⑥이제부터는 방과 후 시간이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나를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내용 생성 측면의 예시 글 2-1]

학습자가 <창가의 토토>을 읽고 작성한 요약문을 기반으로 할 때, 학습자가 전개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토토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거침없이 행동한다. 토토의 갈등은 토토의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다. 그로 인해 토토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 토토의 산만한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학습자는 ②, ③에서 토토가 도모에 학원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모에 학원이 일반적인 학교와 다른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④, ⑥에 서술된 내용은 특목고에 가는 것을 열망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끝맺는다. 대상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에서 벗어난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고, 논지가 일관되게 전개되지 않았다. 갈등의 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문제 상황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⑤에 나타난 생각을 문제 상황과 연계시켰다면 보다 논리적인 글이 되었을 것이다.

<원미동 사람들 - 일용할 양식>

서현중3 박*서

김반장의 형제 슈퍼 가까이에 경호네 부부가 사업을 김포 쌀 상회에서 김포 슈퍼로 확장시킨다. 두 가게는 서로 손님을 더 끌어 모으려고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다. 결국 원가보다 더 낮은 값에 물건을 팔기까지 이르며 갈등은 더 심화된다. 그러던 중 두 가게 사이에 싱싱 청과물이 개업한다. 그 가게에서 과일만 팔지 않고 다른 식품들도 내놓기 시작하자 김반장과 경호네 부부는 연합을 맺어 싱싱 청과물을 기준으로 더 물건을 싸게 판다. 결국 싱싱 청과물 주인은 개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미동을 떠난다. 얼마 후 싱싱 청과물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①김반장과 경호네 부부는 모두 평범한 먹고 살려고 아용다용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물건들을 자신의 가게에서 팔게 되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시작한다. 그들은 내가 상대의 가게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타협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을 하던 그들은 다른 경쟁자가 또 생겨나자 순식간에 동맹을 맺어 가차 없이 경쟁자를 몰아낸다.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②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한다. 하지만 시내 엄마와 같이 자신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나타나면 그들 또한 김반장과 경호네 부부처럼 치열한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내용 생성 측면의 예시 글 2-2]

[예시 글 2-2]는 학습자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①,②를 보면 원미동 사람들의 처지, 행동만을 서술하고 있다. 독서 비평문은 소설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비평문 작성’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의 표면에 드러난 현상만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원미동 사람들-일용할 양식>의 인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겪는 갈등을 보며 인간의 욕망, 인간들 사이의 이해관계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나 바람직한 태도 등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상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자기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못하였다.

<아우를 위하여>

신방학중2 김가*

형은 군대에 간 아우를 위해 자신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편지에 써서 보냈다.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은 6.25직후 초등학교 상급반에서 일어난 내용이다. 상급반에는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 중 힘세고 나이 많은 아이들이 영재를 중심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담임은 거의 교실을 비워둔다. 교실실습을 온 여선생님이 영재를 제어하고 더 나은 반의

분위기로 유도하지만 영래는 못마땅하게 여겼다. 수업시간에 영래는 여선생을 모욕하는 쪽지를 돌려서 여선생을 존경하던 아이들이 영래에게 도전하고 영래의 권위는 순식간에 몰락하였다.

이 책을 읽고 나는 힘만 세서 권위만 높아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영래처럼 어리석은 아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에서는 ①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해도 결국엔 정의로운 쪽이 이기기 때문이다.

[내용 생성 측면의 예시 글 2-3]

[예시 글 2-3]에서 ‘정의가 이긴다.’는 학습자의 주장은 소설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부당한 권력자 앞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아이들의 행동이 변하게 된 원인은 교생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영래의 권위를 몰락시킨 것은 아이들의 연대의식이었다. 학습자가 작성한 요약문을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소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합당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내용 생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예시 글을 종합하여 보면 소설 텍스트에 담긴 문제 상황을 학습자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그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대상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원인은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생성한 내용과의 연계 부족, 문제 상황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해하기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소설 텍스트는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현실세계를 반영한다. 작가가 소설 속에 펼쳐 놓은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현실의 문제 상황과 연결해 보아야 한다. 작가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학습자가 생성한 내용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글은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습자가 파악한 소설 텍스트의 내용과 주장 사이에 연결성이 떨어지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텍스트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주장을 펼쳐야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문제 상황은 설정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적에 따라 글의 갈래가 나뉘듯이 텍스트 읽기도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르다. 일반적인 소설 읽기와 달리 소설교육 상황에서의 소설 읽기는 학생의 문학 능력 증진, 본질적 목표로서의 상상력의 증진, 문학적 문화의 고양, 삶의 총체적 이해 등을 목표로 한다. 소설 교육 상황에서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은 교육 목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석의 타당성은 텍스트 내적 연관성에 의해 텍스트의 중심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중심 내용 및 소설 문법에 비추어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선주원, 박기범, 2010, pp.359-360) 소설 텍스트에서 찾은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해야 그 주장의 합리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교육 영역의 5-6학년 성취기준을 보면 학습자는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학습자들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다양한 갈래로 표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이러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적절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내용을 생성하지 못하는 원인을 토대로 비판적, 창의적, 추론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안을 마련해 볼 것이다.

2.3 논리적 표현의 측면

학습자들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내용 조직의 문제이다. 특히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다. 학습자들의 글을 보면 중심문장만 나열 되었거나 세부내용에 대한 중심문장을 생성하지 못하였거나 하나의 문단 안에 중심문장과 무관한 문장이 포함되기도 한다. 학습자들이 내용을 조직할 때 문단을 구성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모두 짚언〉

서현중3 박*서

이 책을 읽으면서 유정이와 함께 나도 ①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②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좀 더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농촌의 모습을 보니까 ③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TV에서 ④구제역에 관한 뉴스를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슬펐다. 또한, 유정이를 친 딸처럼 대해주고 아껴주며 입양을 하고 힘들어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⑤작은 아빠가 존경스럽게 보였다.

[논리적 표현 측면의 예시 글 3-1]

[예시 글 3-1]의 학습자는 〈모두 짚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다. 한 문단은 오직 하나의 중심 문장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어야 한다. 학습자가 구성한 문단은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올바르게 구성된 문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에서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제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③농촌에서 FTA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④에서는 구제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⑤에서는 작은아빠가 존경스럽게 보였다고 하였다. 소설 텍스트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중심문장에 담고, 그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다면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통해 갖게 된 생각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름>

보평중2 권수*

이 책을 읽고 더 이상 야나의 일이 남일 같지 않다고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정말 발전소에 이상이 생겨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야나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느꼈다. 이 책에서는 나 혼자 살겠다고만 하지 않고 야나를 차에 태워주는 등 ②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았다.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나였으면 그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어린 야나가 ③가족을 잃게 된 슬픔이 잘 전달되는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핵의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해주는 것 같다.

[논리적 표현 측면의 예시 글 3-2]

[예시 글 3-2]의 학습자는 한 문단에서 ①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②어려운 상황에서 베푸는 타인에 대한 도움, ③가족을 잃은 슬픔의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예시 글처럼 하나의 문단에 다양한 의견과 내용이 제시되면 독자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각각의 문단에서 다룬 내용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문단별로 올바르게 내용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잠언>

보평중2 김동*

이 책을 통해 앞으로 ①다문화 가정이라도 못 살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이 책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②유정의 작은 아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농사와 FTA반대 투쟁을 하고, 작은 엄마는 만삭인데도 발일을 한다. 책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하나씩 크고 작은 상처(외면이든 내면이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소설

마지막부분에서는 거의 치료가 되었다. 서로 보듬어주고 공감해 준 결과다. 나도 앞으로 ③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논리적 표현 측면의 예시 글 3-3]

[예시 글 3-3]의 학습자가 작성한 이 문단은 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①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을 언급하고, ②인물의 행동을 단순 나열하다가 마지막에는 ③공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하나의 중심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신, 책의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두서없이 기술하고 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문단은 글의 통일성을 갖게 하고, 이러한 통일성은 주제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낸다. 문단 구성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글의 내용을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단을 작성하기 전에 이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지 정하지 않고 글을 쓴 결과이다. 이 학습자는 글을 쓰기 전에 문단에 담을 내용을 충분히 생성하도록 지도하여 글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논리적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 본 예시 글을 보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 하려면 문단 쓰기가 유용한데, 학습자들은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원인은 중심문장 선정의 어려움, 뒷받침문장 생성의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문장을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용 생성의 문제와 연결 되는데 소설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논의할 주제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을 쓸 때 문단을 구성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문단 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뒷받침문장을 서술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심문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뒷받침 문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서술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사고의 과정을 구조화할 모형이 필요하다.

김창완(2011)은 “좋은 글 좋은 문장이란 필자의 생각이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쓴 글”이라고 한다. 글은 글쓴이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 등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는 요령이나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 지도 과정에서 말하는 ‘좋은 글’이란 글쓴이의 생각이 정확하게 표현된 글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여러 생각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은지 선별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글에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일 큰 이유는 문단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김창완, 2011, pp.13-22)

이경아(2015)에서 학습자들의 문단 쓰기 오류가 나타나는 정도를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독서 감상문을 분석한 결과 3문단 이상에서 중심문장의 오류가 발견된 글은 전체 390편 가운데 53.8%를 차지하고, 1-2문단에서 오류가 발견된 글은 3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뒷받침 문장 또한 3문단 이상에서 오류가 발견된 글은 50.2%, 1-2문단에서 오류가 발견된 글은 44.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글 구성의 오류 종류와 정도¹⁾

문단 쓰기 오류	양호	1-2문단 오류	3문단 이상 오류	계
중심 문장 쓰기 오류 (소주제문 쓰기 오류)	38편 (9.7%)	142편 (36.4%)	210편 (53.8%)	390
뒷받침 문장 쓰기 오류	19편 (4.8%)	175편 (44.8%)	196편 (50.2%)	390
문단 쓰기 형식적 오류 (들여쓰기 오류)	266편 (68.2%)	한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문단	문단 나누기 전혀 안함	390
		69편 (17.6%)	55편 (14.1%)	

1) 이경아. (2015). “중학생 독서 감상문에 나타난 쓰기 오류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p24.

학습자들은 문단의 개념과 문단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만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실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문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 연구자는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문단 쓰기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4학년에서 문단의 개념과 구성 원리를 다루고 있으나 총 3차시로 구성되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문단 쓰기를 익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문단 쓰기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문단 쓰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설명하는 글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단 쓰기는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된다면 독자에게 학습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단을 잘 사용하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한성대학교 교재 편찬위원회, 2006, p.180)고 한다. 소설 텍스트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에 알맞은 논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할 때 문단 형식을 갖춘다. 뒷받침문장을 서술할 때에는 주장에 대한 단순한 이유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논증으로까지 나아가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논증할 때에는 ‘패턴’을 활용한다. 소설 텍스트 속의 인물의 말과 행동을 예로 들거나, 소설 텍스트의 주인공을 다른 인물과 비교·대조하여 평가 하거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등 소설 텍스트에서 근거를 찾는다. 근거를 제시할 때 ‘패턴’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주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전개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과정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논리적 표현을 위해 패턴을 활용하여 논증하기 지도방안을 제안해 보겠다.

Ⅲ.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지도 단계

본고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논리란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일컫는다. 또한 ‘논리적’의 사전적 정의는 ‘논리에 맞는, 사고나 추리에 능란한, 논리학적 지식에 합당한’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표현 능력을 정의하면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 들어 서술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쓰려면 반드시 글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지호(2001)는 글 읽기와 글쓰기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글 읽기가 글을 해석하여 그 글의 의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글쓰기는 세계를 해석하여 세계의 의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글이든 세계든 이를 의미화 한다는 것은 자아가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지적 조작을 가해 대상 그 자체 또는 대상과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지식을 산출하기 위한 지적 조작이 바로 해석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유 능력이다. 이 점에서는 글 읽기와 글쓰기는 서로 일치한다.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하는 것으로 확산되어야만 그 ‘의의’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아닌 ‘나’만이 새로이 구성한 ‘의의’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 방법은 ‘나’가 구성한 ‘의의’를 담아 낼 ‘나의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글 읽기는 글쓰기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고, 글 읽기를 일종의 글쓰기라고 한다. 글 읽기는 글쓰기의 방법론적 전제가 된다.(이지호, 2001, p.11)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은 읽기와 쓰기를 따로 떼어내어 교육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이유는 읽기와 쓰기 사이의 연관성과 유사성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김동환(2004), 이재승(2004), 김명순(2004), 이형래(2006), 김상욱(2008), 최숙기(2012), 김

연주(2013), 윤재연(201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2004)은 지금까지의 문학교육과 달리 ‘읽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읽기’와 ‘쓰기’의 결합이다. 작품을 주체적으로 읽으려면 수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글쓰기를 통한 읽기의 수행’이라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글쓰기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의 결과물이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일 또한 작품의 내용과 형식 요소에 대한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사고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글의 유형으로 ‘비평적 에세이’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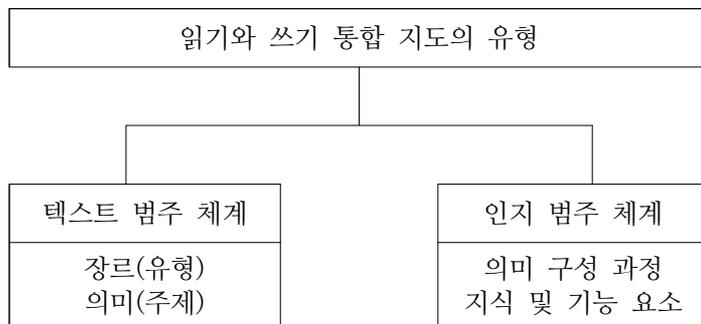
이재승(2004)은 읽기와 쓰기의 공통성과 관련성을 근거로 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의 필요성을 밝힌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통합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통합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통합 교육 활용 방법의 부재 때문으로 보았다. 통합적 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읽기와 쓰기의 변인 관계를 밝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법을 구안하였다.

김연주(2013)는 기존 글쓰기 수업의 문제점을 반성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읽기 작업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글쓰기 수업은 쓰기에 편중되어있어 글쓰기 능력의 향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해 명저로 선정된 고전을 읽고, 토론을 통해 주제 의식을 심화하여 그 결과를 글쓰기와 연계 시키는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읽기와 쓰기의 연계는 통합적 지식 역량 향상의 필수조건임을 밝힌다.

김명순(2004)은 독서와 작문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독서와 작문의 통합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현장에서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지 읽고 쓰게 하는 것이 통합 지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적는 활동은 독서 지도에 쓰는 것을 활용한 것이지만 작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독서 후 작문을 통합하여 지도했다고 하려면 작문 능력의 신장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독서와 작문의 통합지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독서 교육 이론과 작문 교육 이론의 연장선이 아닌 통합적 교육의 이론을 세워야 함을 제기했다.

앞서 살펴본 논의와 마찬가지로 현재 글쓰기 교육의 문제의식을 갖고,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논리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주로 논술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논술 교육은 주로 쓰기 지도를 통해 논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다.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제시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답습하고 재서술하는 수준의 쓰기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반복되기 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가 어떤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해보고 자신만의 주장을 제기해 볼 수 있는 생산적인 글쓰기 수업이 병행된다면 보다 능동적인 쓰기 능력과 논리력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을 표방한다. 인지구성주의 관점에서 읽기와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다. 읽기와 쓰기 교육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의에 따라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숙기(2012)는 국내에서 제안하는 읽기-쓰기의 통합 지도 방향을 텍스트 범주와 인지 범주로 나누었다. 텍스트 범주의 읽기-쓰기의 통합 지도는 장르나 텍스트, 의미를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한 반면 인지 범주의 읽기-쓰기 통합 지도는 읽기와 쓰기가 상호 공유하는 비가시적인 형태의 인지 과정, 지식이나 하위 기능 요소를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유형²⁾

텍스트 범주 체제에서 통합은 읽기의 대상이면서 쓰기의 결과물인 텍스트 실체를 중심으로 한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자서전을 읽도록 하여 자서전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르적 특성이 잘 드러난 텍스트를 읽고, 장르 지식을 익혀 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인지 범주 체제에서 통합은 텍스트의 장르(유형)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읽기나 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인지적 과정이나 지식 또는 기능을 중심으로 읽기-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로 인지 범주 체계로 이루어지는 지도라 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는 현실을 반영한다. 소설 텍스트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될 것이다. 논리적 사고는 비판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문제 인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제 막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중학교 학습자가 현실 세계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 세계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 텍스트를 통한 간접 경험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소설 텍스트를 쓰기의 재료로 삼은 이유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통해 학습자에게 인간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선주원, 박기범, 전개서, p.18) 또한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봄으로써 바람직한 삶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학의 효용성 때문이기도 하다. 소설 교육이 “인간에게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해 인간 스스로 이를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발한다는 점에서, 소설교육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는 특정한 가치의 신봉이 아니라 가치 탐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선주원, 박기범, 전개서, p.22)의 견해에 따라 소설 텍스트를 읽고, 소설의 수용 주체인 학습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은 소설 읽기 과정

2) 최숙기, (2012).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 학습 방안 탐색”, 『한국독서학회』, 28권(0): 118.

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설 텍스트는 소설 읽기 과정 뿐 아니라 소설의 구조를 통해서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수단으로 적합하다. 한국현대소설연구회(1994)에서 소설 구조는 어떠한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설구조의 규범이 불완전성과 문제성을 띠고 변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설 그 자체의 구조는 ‘완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학 장르보다도 더욱 더 그 나름대로의 엄격하고 확고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루카츠는 ‘소설의 역설성’이라고 말한바 있다.”(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4, p.71)고 밝혔다. 소설이 서사를 이루는 구조적 성분들 중에서 작품 자체를 큰 틀로 성립시키는 구조적 원리를 ‘플롯’이라고 하는데, 플롯의 개념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인과 관계’이라는 것이다.

논리적 관계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인과 관계이다. 스토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한 것이라면 플롯은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배열한 것이다. 소설의 모두(冒頭)와 끝의 상응은 이야기의 구성에 일관성이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소설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 나아가서는 자기의 세계관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수단이 된다. 소설의 모두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뒤따르는 전개부와 특히 결말은 그 문제에 하나의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갈등으로 시작되어 갈등이 해결되면서 끝난다. 모든 소설의 짜임이 단계적으로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닫힌 플롯의 경우는 결말을 통해 중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김화영, 1986, p.50, p.74) 이처럼 소설의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논리적 사고 훈련이 가능하다.

김혜정(2004)은 읽기를 중심으로 한 쓰기 통합론에 대해 설명한다. 읽기는 읽기의 목적에 따라 다음 하위 행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따라 하위 행위를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윤복(2017)은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의미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학습자의 문학 작품 ‘수용과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학 활동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그리고 ‘문학 작품의 평가’가 필수적이며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하였다.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 생각 글쓰기 단계까지 나아가야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3.1 소설 텍스트 분석과 이해

3.1.1. 정보 파악하기

소설 교육의 목표³⁾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설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표는 ‘총체적인 세계 인식’이다. 인간의 삶의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려면 텍스트의 의도, 목적, 지향을 알아내야 한다.(선주원, 박기범, 전개서, p.78) 이를 위해 학습자는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더불어 평가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설의 구조와 핵심 요소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3.1.1.1 인물과 배경

소설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요소는 인물과 배경이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의 구성단계를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본다. 소설의 구성단계 중 발단단계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로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며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작가는 인물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인물의 특징과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인물과 관련된 정보는 사건의 원인이나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시한(2010)에서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이지만 작가는 인물을 그릴 때 현실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작중 인물은 텍스트의 의

3) 소설 교육의 목표 ①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② 문학적 감수성 증진, ③ 상상력 증진을 통해 현실 극복의 가능성 획득, ④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의 증진, ⑤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 등 이다. 선주원, 박기범. (2010) 『현대소설 교육론』. 역락, p.61.

미를 표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만들어진다. 인물은 어떤 특질들이 강화되고 종합되어 창조된 존재이다. 특질이란 지속적인 속성, 자질로 인물 해석의 기본 단위이며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성질이다. 이러한 성질은 인물의 성격을 이룬다.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나 인물의 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상상하고 추측하여 알 수 있게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인물의 성격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를 읽어내야 한다.

인물은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⁴⁾으로 나눌 수 있다. 역할에 따라 소설의 주인공인 주동 인물과 주인공과 대립관계에 있는 반동인물을 찾을 수 있고, 시대나 특정 상황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로 나눌 수 있고, 윤리관에 따라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 또는 중립적인 인물인지 나눌 수 있다. 텍스트를 읽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인물의 유형을 파악하면 작품을 해석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성혜정(2004)는 소설의 인물 유형을 분류하여 인물과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를 내면화하는 작업을 통해 학습자의 바람직한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또 인물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활동은 교과서에서 활용되는 단답형 형식의 소설 교육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인물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존재이므로 텍스트를 읽을 때 인물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 인물이 살고 있는 시간, 공간, 사회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견해에 뒷받침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3.1.1.2 사건과 갈등

이야기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진행된다. 여러 사건 중에서 중심 사건과 부수 사건을 구분해 내야 한다. 최시한(2005)에서 사건을 아래 표와

4) 소설에서의 작중인물은 주동인물-반동인물, 개성적 인물-전형적 인물, 긍정적 인물-부정적 인물-중립적인 인물, 평면적 인물-입체적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주원. (2014). 『한국 현대 소설교육론』, 국학자료원, pp.212-213.

같이 층위별로 나누었다. 사건은 상황을 만들고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연쇄되어 줄거리를 이룬다. 사건은 표층사건과 심층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층사건은 객관적이고 외면적으로 파악된 사건이고, 심층사건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된 사건이다.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표층사건으로부터 심층사건으로 나아가는 활동이다. 작품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려면 작품에 드러난 내부 요소들을 적절히 포괄하여야 한다. 이밖에 사건을 갈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건의 층위별 갈래⁵⁾

서술 층위	시간과 서술 양태의 측면	일회 서술 사건
		반복 서술 사건
	표현의 기법과 서술 기능 측면	직접 사건
		간접 사건
정보와 논리의 완결성 측면	명료한 사건	
	모호한 사건	
줄거리 층위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중핵 사건
		위성 사건
	상하관계 혹은 종속관계에 따라	중심 사건
		부수 사건
	미리 보여주고 보이는 관계에 따라	예시 사건
		본 사건
	계열체에 관계에 놓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	반복 사건
		비반복 사건

이와 같은 사건의 구분은 소설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시한(2005)에서는 읽기 행위를 ‘수평적 읽기’와 ‘수직적 읽기’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읽기는 책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이다. 즉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에 수직적 읽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인물과 공간 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관련짓고 추상화하며 읽는 것이다. 학습자는 수평적으로 읽기 시작하여 점차 수직적 읽기로 옮겨가면서 줄거리를 잡게 된

5) 최시한(2005)에서 사건의 해석은 추상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분석할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심사건’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곤욕하다고 보는 갈래를 구분하고 정리하였다.

다. 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재구성되면서 중심인물과 중심사건을 파악한다. 중심사건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갈등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갈등이 중심사건에 내포된 변화 속에서 어떻게 결말지어지는가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제재와 주제를 형성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은영(2014)은 소설을 읽을 때 사건을 읽어 내는 능력을 기본적인 역량으로 보았다. 소설을 읽을 때에는 줄거리 속에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소설 읽기의 시작은 사건의 연쇄, 곧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줄거리 속에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사건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인 갈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으로 비롯되는 갈등, 갈등으로 비롯되는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인물의 심리나 욕망을 추측하게 하여 행동의 동기까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다. 심층적 읽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바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줄거리를 잡아가는 작업이라 하며 텍스트를 감상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를 잡아가는 요약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소설의 요소와 요소들이 작용하는 층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소설의 요소와 층위⁶⁾

줄거리(스토리)		서술
사건 인물	시간 공간	플롯 인물형상화 초점화

정리하여 보면 사건은 소설의 기본단위로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며 줄거리

6) 소설의 층위를 줄거리와 서술로 나누고, 각 층위에 속하는 하위요소 제시하였다. 김은영. (2014). “소설 읽기 능력 지도 방법 :사건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를 이룬다. 하나의 중심사건은 또 다른 사건들과의 연속체로 볼 수 있는데 그 사건들은 인과관계에 놓여있다.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중학교학습자가 텍스트 곳곳에 배치되어있는 정보를 취합하고, 사건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상술하였지만 사건과 함께 살펴볼 요소는 갈등이다. 인물은 크고 작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사건은 갈등을 내포한다. 갈등은 인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 있고, 인물과 인물 간에 겪는 갈등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자연 또는 운명으로 인한 외적갈등이 있다. “갈등은 사건, 인물, 플롯 등에 동력을 주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요 요인이다.” 갈등의 의미를 정의하면 “갈등이란 ‘대립하는 것의 싸움’ 혹은 ‘모순적인 것의 뒤얽힘’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갈등은 인물의 욕망이 무언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선주원, 박기범, 전개서, p205-207) 학습자가 중심 사건과 지배적 갈등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해석은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사건들 사이의 인관관계를 밝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기본 정보 파악 단계’를 거쳐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자기화하기 단계’로 나아가는 지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1.2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

Ⅱ장에서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찾기 위해 학습자들의 독서 비평문을 분석해 보았다. 학습자들의 글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정보 파악의 측면, 내용 생성의 측면, 논리적 표현 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단계로 정보 파악의 측면으로 살펴 본 이유는 학습자들이 대상 텍스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텍스트 내용 파악 여부는 학습자가 작성한 요약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읽은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지 못하였고, 이는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보 파악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글쓰기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질문을 만들고 학습자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지식 전달 수업 보다는 소설 읽기 방법을 교육하는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습자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텍스트를 읽을 때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소설의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도안 제시를 위해 소설 읽기 지도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았다.

소설 읽기 지도가 나아갈 방향을 종합해 보면 먼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이다. 인물의 특징, 성격,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이 사는 시간, 공간, 시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건이다. 사건을 파악할 때에는 주변적인 사건에서 중심적인 사건으로, 표층 사건에서 심층 사건으로, 드러난 갈등에서 잠재된 갈등으로, 초점화 및 인물이 형상화된 방식을 찾아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줄거리를 간추려보는 지도로 나아가야 한다.

소설 텍스트 분석과 이해' 단계의 목적은 소설 텍스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 향후 다른 소설을 읽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습자가 소설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소설을 읽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참고하여 '기본 정보 파악하기 지도안'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4]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텍스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3. 소설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대 상	중학교 학습자	
대상도서	소설 읽기 초급단계의 학습자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읽기로 시작하여 점차 중학생 필독도서와 중학생 추천도서 중 학습자가 읽고 싶은 도서로 선정한다.	
핵심요소	지도 방법과 내용	비고
인물 소개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인물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3.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본다. 4. 이를 종합하여 인물을 소개한다. 	수업 전 활동
배경 파악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알아본다. 2.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지 알아본다. 3.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소재를 토대로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중심 사건찾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심사건과 부수사건을 나누어 본다. 2. 인물이 겪은 사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갈등 파악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물의 갈등 양상을 파악한다. 2.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3. 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 	
내용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 핵심요소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한다. 2. 핵심 요소를 종합하여 내용을 요약해 본다. 	

[표 5] 기본 정보 읽기 활동지

인 물	주인공을 소개해 보세요.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인물의 특징, 말과 행동을 통해 파악한 인물의 성격 등)
배 경	작품의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사 건	인물이 겪은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중심사건 / 부수사건)
갈 등	인물의 갈등 양상을 파악해 보세요. (내적 갈등 / 외적 갈등 -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운명)
해 결 과 정	갈등의 해결 과정을 서술해 보세요.
내 용 요약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됩니다. 인물과 사건의 관계, 사건과 배경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누가(인물) 언제 어디서(배경) 무엇을 왜 어떻게(사건과 갈등) 했나요.

소설 텍스트에 담긴 정보에서 핵심 요소를 찾은 후 이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 단계인 ‘자기화 하기 지도안’에서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여 내면화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3.2 소설 텍스트 수용과 전이

3.2.1 문제 상황 인식하기

논리적 사고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다. 소설도 마찬가지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감정은 소설거리가 될 수 있다. 작가는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과 체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현실 고발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노출되기도 한다. 작가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동서고금의 소설들을 보아도 작가가 이야깃거리로 선정한 것들은 당대에 문제가 된 것들이다.(현대소설연구회, 전개서, p.242) 학습자들은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토대로 작품 속의 형상화된 현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3.2.1.1 문제 상황 발견

소설 텍스트는 사회·문화와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이 창작 배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려면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작품 속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작품 속 사건은 특정한 사회를 토대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 형상화된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쉽지만은 않다.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작가가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구축으로서의 독서가 필

요한데, 이는 지시적인 문장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문장이 지시적이지 않다. 지시적인 문장이 하나의 사건을 보여준다면 비지시적인 문장은 갈등이나 심리, 판단, 감정과 같은 정서가 드러난다. 따라서 지시적인 문장을 바탕으로 비지시적인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사상이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때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작가가 펼쳐놓은 세계 속 사건의 인과 관계에서 의미화 된 사실을 이해하고, 상징화된 사실을 해석해야 한다.(츠베탕 토도로프, 2004, p.130) 이를 위해 학습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의 성격, 소설의 시작과 끝, 작품 속에 다양한 사건과 갈등 중 중심 사건과 주요 갈등을 분별해야 하고, 그 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지, 인물이 갈등에 대처하는 태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서 말하는 문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2.1.2 가치 발견

문학 활동을 하는 목적의 하나는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가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문학이 다루는 대상과 그 대상이 빚어내는 상징적 의미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 재조명하게 될 때 문학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활동은 보다 고차원적이며 주체적인 것이다. 특히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를 자기의 삶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고를 전이적 사고라 지칭할 수 있는데, 읽기에서 쓰기 단계로 이행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사고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대행, 2000, pp.118-121)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보편적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이 사는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

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소설 세계를 의미화 하는 과정이 가치와 결부된다는 측면에서 소설 읽기는 윤리적 차원과 관련이 깊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만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에 결부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선주원, 박기범, 전계서, pp.64-69) 소설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삶의 가치 혹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탐색하여 논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3.2.1.3 입장 정하기

‘소설 텍스트의 수용과 전이’단계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내면화 하는 단계이다. 소설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발견했다면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자신의 입장은 논제로 드러나게 되는데 논제 설정은 글쓰기의 첫 단계로 글쓰기의 성패를 좌우한다. 논제를 설정할 때 논제와 문제의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논제 설정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문제의식이 곧 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설 텍스트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인종차별의 문제’는 문제의식이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논제를 정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논제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도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서울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편찬위원회, 2015, pp.36-40) 논제를 정했다면 글의 목적을 설정한다. 글의 유형은 소설 텍스트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에 따라 ‘주장하기’ 또는 ‘문제 해결하기’로 설정할 수 있다. 글의 유형은 3.3.1.1 개요 짜기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2.3. 자기화하기 지도안

내용 생성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소설텍스

트의 분석과 해석에 그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소설 텍스트에 담긴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은 인식하였지만 무엇을 주제로 하여 글을 전개해 나가야 할지 논제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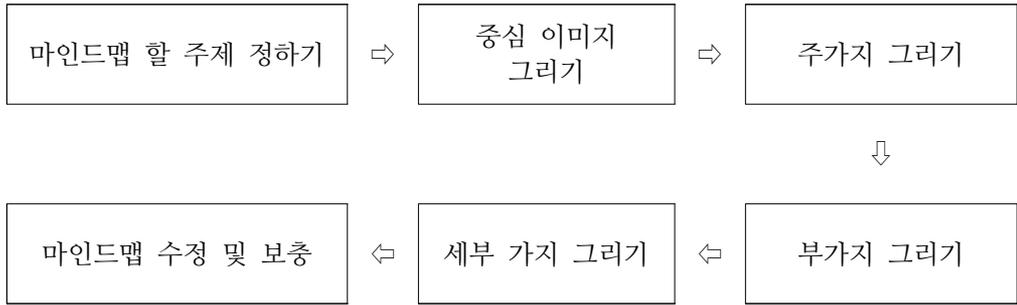
이를 위해 ‘소설 텍스트 수용과 전이’단계에서는 마인드맵과 발문을 통해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갖도록 한다. ‘소설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에서 파악한 핵심요소들을 더욱 깊이 있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정용(2009)에 따르면 마인드맵은 1970년 영국의 심리학자인 Tony Buzan 이 두뇌이론을 바탕으로 기억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학습기법이라고 한다.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사고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정보간의 상호 관련성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정용, 2009, pp.7-8)

또한 최윤희(2015)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는 사고의 과정을 촉진시켜 표현력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문자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글쓰기의 준비과정이라는 것이다.

장은정(2013)은 마인드맵 작성 과정에서 독립된 각각의 정보를 연결하여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글의 글감을 찾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장은정, 2013, p.42)

이외에도 김화순(2011), 장은예(2009) 등에 의해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가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촉진시키고, 글쓰기 과정에서 내용을 생성하는데 효율적이며 표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설텍스트의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내용을 생성하는데 마인드맵을 활용하고자 한다. 마인드맵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마인드맵 작성 순서⁷⁾

다음은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갖도록 한다. 발문⁸⁾은 마인드맵으로 펼친 내용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윤여정(2005)은 문학교육에서 사용되는 발문을 분석한 결과 기억의 재생을 요구하거나 단순한 개념을 묻거나 학습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발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학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발문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하였다. 발문을 통한 수업은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정(2003)도 교사의 발문에 따라 학생들의 인지 과정과 정서작용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발문을 통해 마인드맵으로 펼친 사고들 중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논제를 삼을 것인지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가치를 학습자의 삶 속에 적용하여 자기화 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7) 정용. (2009). “마인드맵을 활용한 과정중심 쓰기학습이 쓰기능력과 학습책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9

8) 교육학적 의미에서 발문은 ‘교사가 학습 활동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던지는 문제제기’이다. 윤여정. (2005). “발문 교수법에 따른 시 교육방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에서 박병학. (1986). 『발문법 원론』. 세광출판사, pp.62-63. 재인용.

[표 6] 자기화 하기 지도안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된 세계의 문제와 인간의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2.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삶의 가치 혹은 세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탐색할 수 있다. 3. 문제 상황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대 상	중학교 학습자	
대상도서	소설 읽기 초급단계의 학습자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읽기로 시작하여 점차 중학생 필독도서와 중학생 추천도서 중 학습자가 읽고 싶은 도서로 선정한다.	
내용생성	시간	지도 방법과 내용
마인드맵	2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인드맵 할 주제를 정한다. 2. 주가지→부가지→세부가지를 그린다. 인물→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간의 관계→성격, 역할→사건→여러 가지 사건들→갈등양상→내적갈등, 외적갈등→갈등의 해결과정→인물의 선택, 태도→소설의 시작과 끝→시작, 끝→
가치발견	1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또는 원인을 찾아본다. 2. 등장인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의 말과 행동 또는 태도를 평가해 본다. 3.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후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힌다. 4. 나라면 소설 속 갈등을 어떻게 헤쳐 나갔을지 생각해 본다. 5. 작가가 인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설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문제발견	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입장정하기	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속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본다. 2. 문제 상황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논제정하기	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떤 내용을 논제로 삼아 글을 쓸 것인지 정한다.

[표 7] 자기화 하기 활동지

내용생성	사건의 배경,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의 성격, 사건, 갈등, 갈등 해결과정, 등장인물의 역할, 소설의 시작과 끝 등.
마인드 맵	
가치발견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등장인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의 말과 행동 또는 태도를 평가해 보세요.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갈등을 어떻게 헤쳐 나갔을지 생각해 보세요.
문제발견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 속의 문제 상황을 찾아보세요.
입장정하기	문제 상황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논제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논제를 정하세요.

3.3 논리적 텍스트 생산

3.3.1. 내용 조직하기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학습자는 국어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특히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독창적인 의미를 만드는 능력이다.(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려면 능동적으로 읽기, 쓰기 경험이 반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학 교육에서는 작품을 읽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활동을 성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 결과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김성진(2012)은 작품이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학습자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작품을 읽어야 하는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다양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판단이 텍스트 내적 요건을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다성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읽기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학습자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미를 실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을 수용하라고 하지만 그를 어떻게 텍스트와 결부시킬 것인가는 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고 하였다.(김성진, 2012, pp.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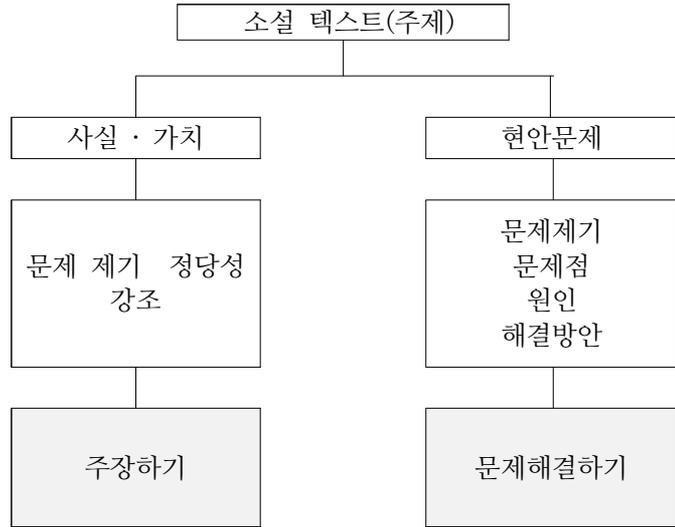
소설 텍스트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습자는 작품 내외적 요소와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3.1.1 개요 짜기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초고 쓰기-고쳐 쓰기’의 쓰기 과정을 거친다. ‘논리적 텍스트 생산’ 단계는 쓰기 과정의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된다. ‘계획하기’에서는 글의 목적, 글의 종류, 주제 등이 정해지는데, 본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로 글의 목적과 글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논리적 텍스트 생산’ 전 단계인 ‘소설 텍스트 수용과 전이’단계에서 마인드맵과 발문을 통해 내용을 생성하였기 때문이다.

설득하는 글은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득하는 글의 유형은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주장하는 글을 쓸 것이다. 양경희(2016)는 주장의 유형⁹⁾에 따라 글의 내용과 조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나 가치를 다룰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글이 구성된다. 이 경우 주장과 근거로 내용을 구성한다.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강화한다. 이와 달리 주장하는 내용이 현안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밝힌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게 된다. 이처럼 주장의 내용에 따라 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주장하기’로 후자를 ‘문제 해결하기’로 구분하여 학습자가 글의 목적을 정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9) 주장의 유형은 주장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토론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Freeley & Steinberg(2013)은 “토론에서는 논제를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누고, 윌리엄스·콜럼/윤영삼 역(2007/2008)은 “논증의 문제를 독자들이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개념문제, 독자들이 행동까지 해야 하는 실용문제로 나눈 후, 가치를 다루는 문제는 개념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고 실용문제로 접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를 제기하고자 주장을 펼치는 경우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양경희, (2016).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108(0), p.157



[그림 3] 주장하는 글의 유형

학습자들은 개요 짜기 단계에서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 혹은 소설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 글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 사실이나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주장하기 유형을 선택하여 글의 개요를 짜게 된다. 조효정(2006)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신장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논증 구조를 가진 주장하는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입증해야한다.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어 어떤 근거를 제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주장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위해 근거와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하는 글의 구조를 개요 짜기에 적용하면 소설 텍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주장을 밝힌다.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논증요소는 소설 텍스트에서 마련한다.

문제 해결 글쓰기는 문제의 발견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힌다. 그 후 실현가능

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구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이 있다.

‘문제점+해결책’이 논제인 경우		‘문제점+원인분석+해결책’이 논제인 경우	
〈서론〉	화제 도입 및 문제제기	〈서론〉	화제 도입 및 문제제기
〈본론〉	문제점(주장과 그 근거) 해결책(주장과 그 근거)	〈본론〉	문제점(주장과 그 근거) 원인(주장과 그 근거) 해결책(주장과 그 근거)
〈결론〉	요약 및 해결의 당위성 강조	〈결론〉	요약 및 해결의 당위성 강조
‘원인 분석+해결책’이 논제인 경우		“문제점+원인 분석”이 논제인 경우	
〈서론〉	화제 도입 및 문제제기	〈서론〉	화제 도입 및 문제제기
〈본론〉	원인(주장과 그 근거) 해결책(주장과 그 근거)	〈본론〉	문제점(주장과 그 근거) 원인(주장과 그 근거)
〈결론〉	요약 및 해결의 당위성 강조	〈결론〉	요약 및 해결의 당위성 강조

[그림 4] 과제 해결형 논제의 답안 구성¹⁰⁾

위와 같이 문제 해결 글쓰기는 논제에 따라 답안 구성 방식이 다르다. ‘문제점+원인분석+해결책’이 논제인 경우를 예로 들어 문제 해결 글쓰기의 개요 짜기를 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소설 텍스트에서 발견한 문제를 제기한다. 본론에서는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소설 텍스트에서 마련한다. 그 다음 그러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을 밝히는데 이 또한 소설 텍스트에서 근거를 찾아 제시한다. 해결책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해결방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글의 각각의 구성요소는

10) 김대행 외. (2006). 『고등학교 논술』. 서울: 대한교과서(주), p.42.

하나의 문단이 된다. 각 문단은 주장과 근거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어떻게 제시 하는가에 따라 글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정화(2011)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 되어 있는 개요 짜기가 처음, 가운데, 끝 정도의 구획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개요 짜기 방법과 과정을 익히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개요 짜기를 이용하여 논술 쓰는 활동을 관찰해 보면 개요를 짜 놓은 것과 완성 된 글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개요 짜기에서 문단 쓰기 교육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문단쓰기는 글쓰기 과정에 활용되어 글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개요 짜기 단계에서 문단 형식을 갖춰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고, 문단 구성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문단을 구성하는 방법과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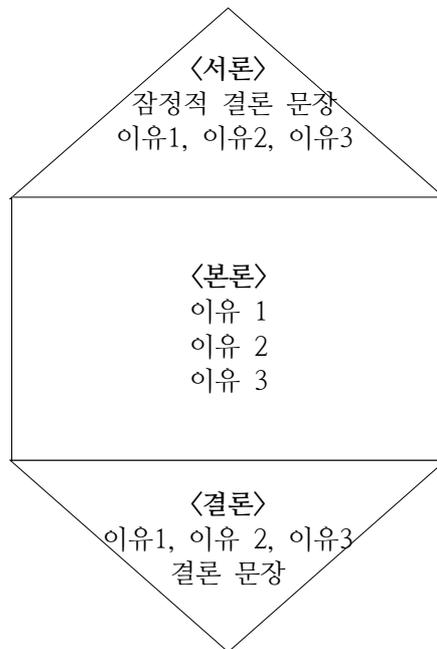
3.3.1.2 문단쓰기

학습자들은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교육에서 쓰기 과정을 학습하였다. 또한 글의 형식과 각 갈래별 글의 특징도 배워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문단 쓰기를 꼽을 수 있다. 문단이란 ‘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글을 조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문단이다. 문단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문단이 잘 되어야 한다.

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중심문장을 잘 설정해야 한다.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중심문장에 담기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핵심내용을 담아야 한다. 중심문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내용까지 잘 조직되었을 때 탄탄한 글이 될 수 있다.(한성대학교 교재 편찬위원회, 전게서, pp.174-177) 문단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글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글을 전개 하는데도 수월하다.

유세환(2015)은 논리적인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부터 쓰라

고 주장한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 또는 주장을 앞에 쓰고 그 틀 안에서 글을 써나가라는 것이다. 결론을 글의 첫머리에 쓰면 자기 글의 논리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 전달하는 과정이므로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쓰고,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서술한다. 논리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다보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다이아몬드 글쓰기의 기본 구조¹¹⁾

위와 같은 ‘다이아몬드 글쓰기’는 핵심적인 생각을 먼저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학습자가 논리를 펼치기에 수월하지만 독자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글의 순서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생각을 먼저 쓰고 구체적이고 부연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글쓰기의 기본 구조는 문단을 구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습자는 글의 각 문단에 중심문장 즉 주

11) 유세환, (2015). 『결론부터 써라』. 미래의 창, p.21

장을 먼저 서술하고, ‘패턴’을 활용하여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3.3.1.3 패턴 활용하여 논증하기

모든 글의 기본 단위가 문단이지만 논증하는 글쓰기에서 문단 쓰기는 더욱 유용하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논증이라 한다. 무언가를 논증하고자 한다면 주장하는 바가 하나의 문장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논증 과정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채석용, 2011, p.30) 하나의 소주제 즉 중심문장에 대해 뒷받침 문장으로 논증하고, 다음 문단에서 새로운 소주제에 논증하면 주제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줄어든다.

학습자들이 생산해 내는 글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주를 이룬다. 정서 표현의 글이 그러하듯 정보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비문학 글 또한 일정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다.

『EBS 필독 중학 국어로 수능 잡기 비문학 읽기』 중학 교재에서는 ‘패턴’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 읽기 전략을 제시한다. ‘패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쓰여 온 글들을 깊이 살펴보고 찾아낸 원리라고 한다. “글쓴이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패턴이다.” 또한 “패턴을 이용해 글쓴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글을 읽는다면 당연히 글의 구조나 글의 중심 생각,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읽어 낼 수 있다.”(EBS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 2016, p.2) 이 교재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활용하기 적절한 7가지 패턴을 소개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읽기 능력 향상 위한 7가지 패턴¹²⁾

패턴	패턴 활용의 의도
비교와 대조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밝혀 주면 내가 선택한 일이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
유형화	복잡하게 펼쳐져 있거나 얽혀 있는 일들, 생각들을 질서를 잡아 가면서 주제를 펼쳐 나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
정의	말이란 그것을 사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 환경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 마련이니 먼저 정의를 해 두면 이해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지?
과정	복잡한 세상일을 드러난 것만 보여 주기보다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면 생각할 방향이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인과와 영향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일이 빚어낸 결과, 나아가 그것이 미칠 영향을 따져 보면 해결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예시	어떤 것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주장을 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면 내 말에 신빙성이나 타당성도 더해지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쉽지?
논증	앞뒤 없이 내 생각이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간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야.

위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패턴을 활용하는 이유를 알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역으로 학습자도 패턴을 익혀서 글을 쓸 때 활용한다면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글쓰기 교육 연구 자료에서는 ‘패턴’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흥미(2017)는 ‘패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와 쓰기 영역에서 교수-학습에 적용한 사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12)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 (2016). 『 EBS 필독 중학 국어로 수는 잡기 비문학 읽기』. 한국교육방송공사, p.3.

‘패턴’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개념을 교수-학습에 적용하기도 한다. 작문 교육 이론서와 교재에서 ‘패턴’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9] ‘패턴’이 활용되고 있는 작문 교육 이론서와 교재¹³⁾

Judith Nadell 외(2009)	필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단일의 혹은 복합적인 다양한 패턴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패턴을 ‘서술(Description)’, ‘묘사(Narration)’, ‘예시(Exemplification)’, ‘구분-유형화(Division-classification)’,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비교-대조(Comparison-Contrast)’, ‘원인-영향(Cause-Effect)’, ‘정의(Definition)’, ‘논쟁-설득(Argumentation-Persuasion)’로 구분한다.
Regina L. Smalley 외(2002)	에세이를 조직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패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에세이의 구조를 설명한다. 에세이의 단락별 내용 구성을 유형화하여 ‘패턴’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Jason Davis·Rhona Liss(2006)	각 에세이 유형별로 구조를 제시하여 글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본문 단락 구성을 위해 ‘사실, 예시, 영향, 효과, 질문 등’을 사용하여 중심 주제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교수하고 있다.
Ann Hogue(2006)	‘Block pattern’과 ‘Point-by-Point Pattern’등을 제시하여 주제에 따라 효과적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자가 논지를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패턴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 이흥미. (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1-43.

이흥미(2017)는 위의 표와 같이 에세이 쓰기 교육 과정에서 ‘패턴’의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모형이 제시되지 않고, 패턴 중심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텍스트의 형식적인 측면의 교수-학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용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패턴’을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패턴’은 설명방법뿐 아니라 설득하기, 비평하기 등 다른 목적의 글을 쓰기 위한 전략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패턴의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익히고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읽기영역과 쓰기영역에는 각각 설명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활동과 대상에 특성에 맞는 설명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제시된 설명방법으로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인과, 분석’ 등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설명방법은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주로 쓰이지만 여러 가지 글에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방법을 ‘패턴’이라 명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때 활용하고자 한다.

패턴 활용 단계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나 주장을 중심문장으로 정하고, 부연 설명하거나 근거로 제시할 내용을 뒷받침 문장으로 서술한다. 패턴을 활용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려면 패턴에 대한 이해와 연습 그리고 적절한 패턴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패턴의 활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패턴을 사용하지 않은 문단과 패턴을 활용한 문단을 살펴보겠다.

(임의대로 쓴 문장)

자연과학이 이루어낸 성과는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었다. 물리학, 화학생물학 그리고 의학 등의 혁신과 발명으로 물질문명을 증진시켰다.

(‘예시’ 패턴을 사용한 문장)

자연 과학이 이루어낸 성과는 각종 기술의 혁신과 발명을 초래했으며

물질문명을 증진시켜서 인류의 생활은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 곳곳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생명 공학의 발달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식량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의학의 발달은 많은 불치병을 낮게 하였다.

(임의대로 쓴 문장)

유전자 조작 식품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인과’ 패턴을 활용한 문장)

유전자 조작 식품은 바이러스에 강하고, 저장기간이 길며, 여러 가지 독성에 강한 제초제를 견딘다. 따라서 재배가 쉽고,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택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생산해 낸다.

학습자가 임의대로 쓴 문장을 패턴을 활용하여 다시 써 보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패턴’을 활용하면 문단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패턴을 활용하여 서술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에게 ‘예시’와 ‘대조’ 패턴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게 한 사례이다.

보평중2 송*영

한사람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발장의 경우에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 그런데 가난을 만든 사회는 장발장이 왜 빵을 훔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장발장이 빵을 훔친 행위만 보아 장발장을 처벌하였다. 장발장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장발장은 억울하게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반대로 판결에서 여러 가지 면을 보아 명쾌한 판결이 된 사례도 있다. 가게에서 빵을 훔친 노인에게 대한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이다. 빵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기 하지만 노인이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고려하여 라과디아는 벌금 10달러는 노인 대신 자신이 내고 방청객들에게 5센트씩 내게 했다. 이처럼 ‘라과디아’는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 모두를 고려해서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그 노인에게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면 모두 다 공평하고 행복한 판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양면을 보지 않고 한 면만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엔 꼭 양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문단을 구성할 때 패턴을 활용하면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중심문장을 만들고, 뒷받침 문장의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일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패턴을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글을 서술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글의 논리성을 제고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패턴을 활용하여 글을 조직하기 위해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을 제안한다.

3.3.2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문단 구성하는 방법은 초등교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웠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 문단을 구성하여 글을 전개하는 학습자가 드물었다. 중심문장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뒷받침 문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구조화 하지 못하였다. 사고의 과정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을 제안한다.

[표 10]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제에 따라 글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2. 개요 짜기를 할 때 서론-본론-결론의 글의 형식을 갖추고, 각 구성 요소별 주장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 ‘패턴’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대 상	중학교 학습자	
대상도서	소설 읽기 초급단계의 학습자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읽기로 시작하여 점차 중학생 필독도서와 중학생 추천도서 중 학습자가 읽고 싶은 도서로 선정한다.	
표현하기	지도 방법과 내용	비고
개요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텍스트에서 찾은 중심 내용이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고 있다면 주장하기로 글의 목적을 설정하고,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문제 해결하기로 글의 목적을 설정한다. 2. 글의 목적을 주장하기로 설정했다면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주장을 펼친다. 제시할 근거는 소설 텍스트에서 찾는다. 3. 글의 목적을 문제 해결하기로 설정했다면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은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의 요소로 구성한다. 결론은 요약 및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글쓰기
문단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장을 중심문장으로 근거를 뒷받침 문장으로 이해한다. 2. 글의 각 구성 요소는 문단 형식을 갖춘다. 3. 중심문장인 소주제문을 만들고, 뒷받침 문장은 ‘패턴’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패턴 활용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패턴에는 ‘정의, 예시, 비교·대조, 인과·영향, 유형화, 과정, 인용’이 있음을 알고, 각 개념과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이해한다. 2. 근거로 제시할 내용을 소설 텍스트에서 찾는다. 3.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패턴을 선택한다. 	

[표 11] 내용 조직하기 활동지

글의 목적		주장하기	문제 해결하기
개요 짜기	서론	화제 도입 및 문제 제기	화제 도입 및 문제 제기
	본론	주장 - 근거	문제점(주장-근거) 원인(주장-근거) 해결 방안 (주장-근거)
	결론	요약 및 정리	요약 및 해결의 당위성 강조

문단 구성하기	주장(중심문장) : 소주제문을 만들어 보세요. 근거(뒷받침문장) : ‘패턴’을 활용해 보세요.						
패턴 활용하기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인과 영향	유형화	과정	인용

서론
본론
결론

IV. 지도 방안 적용 결과 분석

본고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적용하여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설 텍스트를 읽고, 글쓰기를 시행하였다. 능동적인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은 단시간 내에 향상 되지 않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했다. 글을 쓰기 위한 대상 텍스트는 소설 읽기가 능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국어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 읽기로 시작하였고, 점차 중학생 필독도서와 중학생 추천도서 중 학습자가 읽고 싶은 도서로 학습자에게 선정하게 하였다. 모든 소설 텍스트가 본고에서 제안한 것처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에게 글의 장르를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자기 표현적 글’¹⁴⁾로 나누어 제시하고, 대상 텍스트의 특징에 맞게 글의 장르를 학습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적용한 32명의 학습자들의 글 중 설득을 목적으로 한 글을 선별하여, 완성도가 높은 글보다는 각 단계별로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인 학습자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습자의 글을 다음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표 12] 논리적 텍스트의 평가 기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질문
소설 텍스트 이해	핵심 요소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약	소설 텍스트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가?
내용 생성	자기화	소설 텍스트에서 다루는 문제를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합리성	논제가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출되었는가?

14)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을 정보전달, 설득, 친교·정서 표현으로 나누었다. 이를 토대로 글의 장르를 제시하였다. 원진숙 외. (2016).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p.275

표현	통일성	주제가 뚜렷하고 일관되게 서술되었나?
	타당성	제시한 근거가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적절성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나??
	문단구성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을 잘 구성하였는가?
	구체성	적절한 패턴을 활용하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나?

먼저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을 적용하여 소설 텍스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학습자들의 글을 정보 파악 측면에서 살펴 본 [예시 글 1-2](21쪽)을 썼던 서현중 2학년 진상* 학습자의 글을 살펴보겠다. 이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학습자이다. <꽃가마배>를 읽고, 학습자가 작성한 ‘기본 정보 읽기 활동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공을 소개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나’는 태국의 이주 여성이자 나의 새엄마인 능 르타이를 경계하고 있다.

◆ 작품의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요?

‘나’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소수자를 존중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 인물이 겪은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나’가 어릴적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는 장애인 판정을 받으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된다. 고모가 아버지를 돌보았지만 고모가 임신도 하고 아버지를 혼자 돌보기엔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혼을 준비하는데 태국에 가서 능 르타이라는 20대 여성을 집에 데려온다.

◆ 인물의 갈등을 파악해 보세요.

능 르타이가 ‘나’의 새엄마로 집에 오자 ‘나’는 능 르타이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능 르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비웃음과 놀림거리가 되기 싫어 능 르타이가 새엄마라고 말하지 못한다.

◆ 갈등의 해결 과정을 서술해 보세요.

‘나’는 능 르타이가 죽은 뒤 능 르타이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능 르타이 또한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가족이 있으며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은 위의 ‘기본 정보 읽기 활동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문이다.

‘나’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와 아버지 둘이서 살다가 고모가 아버지의 재혼을 준비한다. 아버지와 고모는 태국에 가서 능 르타이라는 20대 여성을 집에 데려온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고모의 의심과 구박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능 르타이는 아기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능 르타이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새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공장 화재 사고로 능 르타이가 죽은 뒤 능 르타이에게 배달된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보고 그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학습자는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에 따라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내용 파악은 물론 내용을 생성하지 못하였던 이 학습자는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비롯하여 갈등과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의 해결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꽃가마배〉

서현중 3 진상*

이 책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인용)“차마 스무 살짜리 외국 여자가 내 새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비웃음과 놀림

거리가 되기 싫어서였다.”라고 말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잘 드러내 준다.

아무리 이주 여성들의 목적이 돈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해도 그들 또한 많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므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예시)고모는 능 르타이가 고향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수작부리지 말라면서 구박을 한다. 또 아기를 가졌을 때도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 비난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지만 고모는 능르타이에게 기본적인 권리마저 다 빼앗는다. (인과)그래서 능 르타이와 고모의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다 사고로 죽게 된다.

(예시)그녀가 죽은 후 능 르타이에게 배달된 그녀의 아버지의 편지를 보면 그녀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우리와 다른 피부색, 문화, 언어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과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려 하면 안 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진 않더라도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한다.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 적용 후 예시 글 4-1]

[표 13] 예시 글 4-1의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 질문	점수
핵심요소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는가?	1-2-3-4-⑤
요 약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	1-②-3-4-5
자 기 화	소설 텍스트에서 다루는 문제를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1-2-3-4-⑤
합 리 성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논제가 도출 되었는가?	1-2-3-4-⑤
통 일 성	주제가 뚜렷하고 일관되게 서술되었나?	1-2-3-4-⑤
타 당 성	제시한 근거가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였는가?	1-2-3-4-⑤
적 절 성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나?	1-2-③-4-5
문단구성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였는가?	1-2-3-④-5
구 체 성	패턴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2-3-④-5

[예시 글 4-1]의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다문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가정의 불화와 개인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근거를 예시와 인과 패턴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이 학습자는 교사의 점검을 통해 고쳐 쓰기와 본고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활용하여 꾸준한 글쓰기 훈련이 병행된다면 논리적인 표현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은 [내용 생성 측면의 예시 글 2-2](26쪽)를 썼던 학습자가 본고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적용 하여 다시 작성한 글이다. 이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의 기본 정보는 파악하였으나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학습자였다. 따라서 2단계와 3단계 지도안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화 하기 활동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또는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엄격한 주입식 교육 때문이다.

◆ 등장인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의 말과 행동 또는 태도를 평가해 보세요.

도모에 학원의 고바야시 소사쿠 교장 선생님이다. 토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눈높이를 맞춰 주어서 말하는 이가 더 적극적이고 의욕 넘치게 말할 수 있다.

◆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도모에 학원에서는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다. 아이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며 자유롭고 능동적인 일탈같은 수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시간표도 없고, 자리표도 없고, 전철이 교실이며 도시락도 산과 바다에서 나는 것이다. 도시락 하나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해요’라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도시락 반찬의 원산지를 구분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는 교장방식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을 아이들 각자 만들어 가는 것, 매일매일 신선하고 새로움, 고정관념을 덜 갖게 된다.

- ◆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배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 속의 문제 상황을 찾아보세요.
공교육의 문제점-지나친 경쟁심리 심어줌, 자유와 개성 억압, 소외되는 아이들 만들
- ◆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논제를 정하세요.
도모에 같은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배움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2단계인 ‘소설 텍스트 수용과 전이’ 단계에서 <창가의 토토>의 문제 상황을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보고, ‘도모에 같은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배움의 필요성’을 논제로 삼아 문제 해결 글쓰기로 다시 작성하였다.

<창가의 토토>

보평중 3 송지*

<창가의 토토>는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고, 도모에 같은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배움의 귀중한 가치를 독자들에게 느끼게 해준다. 이 책의 주인공 토토는 초등학교 1학년도 미처 마치지 못한 채로 퇴학당했다. 수업시간에 친동야에게 말을 걸고, 이상한 책상소리를 내는 등 나쁜 짓은 아니지만 좀 산만한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조)그러나 이런 토토가 도모에 학원에 다니자 180도로 변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릴 줄도 남의 말에 집중할 줄 도 무리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적응하였다. 그렇다면, 공교육과 도모에 학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만을 엄격한 방법으로 주입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개인만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당한다. (예시)예를 들어 도모에 학원에서 의 리드미크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박자와 포즈를 발전시켜나가고 다른 사람의 비트와 동작을 관찰하거나 활용하여 다함께 성장한다.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수업에서 친구들과끼리 경쟁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잃어가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공교육은 소외되는 아이를 만든다. 그 (예시)예로 소아마비에 걸린 야스야키, 외소증인 다카하시, 토토 모두 도모에에선 다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었다. 게다가 체육대회에서 한 ‘계단 오르기’에선 다카하시 같은 친구가 돋보이기까지 했다. (대조)그러나 그들 모두 공교육에선 포기해버린 아이들이 아니었던가? 이처럼 많은 학교들에선 학교가 멋대로 정해놓은 엄격한 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혀 퇴학까지 시키는 것이다. 다 행복하고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똑같은 아이들인데, 학교가 그들을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

따라서 공교육은 학생들의 바람과 기대를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바라는 수업활동, 학생들이 기대하는 비전, 학생들이 지키고자 하는 교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⑩(예시) 시험이나 수행평가 같은 점수제 보다 진로 강연 같은 특별활동을 늘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음악을,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대안학교들은 문제아들이나 장애우들이 가는 덜떨어진 학교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더 자유롭고 능동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학교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자기화하기 지도안 적용 후 예시 글 4-2]

학습자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로 토토의 이전 학교생활 모습과 도모에 학원에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주인공의 갈등 원인을 교육 환경으로 보았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교육에서 지나친 경쟁 심리를 심어주고, 자유와 개성이 억압되어 토토와 같은 학생을 문제아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도모에 학원의 특별한 수업 방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학생들이 다함께 성장하는 것을 예로 든다. 또한 공교육은 소외되는 아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도모에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었지만 그런 아이들이 도모에 학원에서는 무리의 일원이 되어 다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대조하며 근거를 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교육에서 엄격한 방법으로 학생

들에게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만을 주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학생들의 바람과 기대를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학습자가 제안한 자유롭고 능동적인 수업은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시 글 4-2를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 14] 예시 글 4-2의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 질문	점수
핵심요소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는가?	1-2-3-4-⑤
요 약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	1-2-3-4-⑤
자 기 화	소설 텍스트에서 다루는 문제를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1-2-3-4-⑤
합 리 성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논제가 도출 되었는가?	1-2-3-4-⑤
통 일 성	주제가 뚜렷하고 일관되게 서술되었나?	1-2-3-4-⑤
타 당 성	제시한 근거가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였는가?	1-2-3-4-⑤
적 절 성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나?	1-2-③-4-5
문단구성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였는가?	1-2-3-④-5
구 체 성	패턴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2-3-④-5

[예시 글 4-2]의 학습자는 이전 글에서 현안 문제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치고, 주제가 일관되게 서술 되지 못했다.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감상을 서술하여 글의 합리성과 타당성 또한 갖추지 못했었다. 평가 기준을 토대로 다시 작성한 글을 살펴보면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논제를 정하고,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글을 전개 하였다. 또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소설 텍스트에서 마련한 후 패턴을 활용하여 제시 하였다. 그 결과 내용의 적절성과 통일성을 갖추어 이전에 작성한 글에 비해 논리적인 글이 되었다.

다음 글은 [표현 방법 측면의 예시 글 3-1](31쪽)을 썼던 학습자가 본고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적용 후 쓴 글이다.

<아몬드>

서현중 3 박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타인에 무관심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 책의 시작에 나오는 구멍가게 아저씨는 한 아이가 맞고 있다는 윤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아이를 구하려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밝혀졌고, 아이가 죽고 나서야 후회를 할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야 한다. (예시)윤재는 어릴 때 받은 상처로 방황하는 곤이를 도와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갈등한다. 주위 사람들은 윤재에게 그를 내버려 두라고 한다. 곤이의 아버지조차 곤이가 반항하는 이유, 곤이의 고민, 곤이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윤재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의문을 가진다. 왜 다른 사람들은 TV를 보며 타인의 비극을 듣고도 금새 그것을 잊어버리며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일까. (인과)오히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곤이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곤이는 윤재에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곤이를 생각하는 윤재의 용기 있는 선택은 곤이가 잘못 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다. 다른 사람들이 윤재 같았다면 구멍가게 사장의 아이, 윤재의 할머니도 사람들의 방관에 의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윤재가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도 주위 사람들이 윤재에게 관심을 가지며 지켜봐 주었기 때문이다.

윤재가 곤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편견 없이 다가갔듯이 우리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용 조직하기 지도안 적용 후 예시 글 4-3]

먼저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화하기 활동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또는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한 중학생이 집단 폭행으로 길거리에서 맞아 죽고, 윤재의 할머니가 묻지마 범죄로 길거리에서 칼에 찔려 죽는다. 그 원인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 등장인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의 말과 행동

또는 태도를 평가해 보세요.

주인공 윤재는 선천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지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학교에서 도둑으로 몰린 곤이는 깡패 소굴로 가출을 한다. 윤재는 목숨을 걸고 모두가 외면했던 곤이를 구하고 크게 다친다. 윤재의 용기 있는 행동이 곤이의 마음을 열게 한다.

◆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 속의 문제 상황을 찾아보세요.

타인에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논제를 정하세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야 한다는 학습자의 견해를 밝히고, 예시와 인과 패턴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표 15] 예시 글 4-3의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 질문	점수
핵심요소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는가?	1-2-3-4-⑤
요 약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	1-2-③-4-5
자 기 화	소설 텍스트에서 다루는 문제를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1-2-3-4-⑤
합 리 성	소설 텍스트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논제가 도출 되었는가?	1-2-3-4-⑤
통 일 성	주제가 뚜렷하고 일관되게 서술되었나?	1-2-3-4-⑤
타 당 성	제시한 근거가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였는가?	1-2-3-4-⑤
적 절 성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나?	1-2-3-④-5
문단구성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였는가?	1-2-3-④-5
구 체 성	패턴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2-3-④-5

이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은 글을 썼었다. 하나의 문단에 많은 내용을 담아 제대로 된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의견

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아 학습자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예시 글 4-3]은 학습자의 주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신감의 부족, 쓰기 학습의 부족이다. 첫 번째 원인은 한 번에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학습자에게 글쓰기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 결여로 쓰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교사가 성공적인 쓰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쓰기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은 쓰기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쓰기 학습이 꾸준히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박영민, 2016, pp178-179) 본고에서 제안한 지도 방안을 학습자에게 적용하여 학습자는 글쓰기가 각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고, 능동적 읽기와 쓰기의 경험이 반복될 때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읽고 쓰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논리적 표현 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 기대한다.

IV. 결 론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킬 지도 방안을 찾기 위해 학습자들의 글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찾아 그를 보완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비평문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독후 활동도 권장하고 있지만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글의 장르는 논리적인 글이다. 논리적인 글쓰기의 훈련은 중학교 학습자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글 읽기와 글쓰기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신문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나 논술 교재의 정해진 논제로 글쓰기를 시행해 본 결과 글의 내용이 풍부하게 생성되지 않았다.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였고, 무엇보다 능동적인 읽기와 쓰기로 이행되지 않았다. 쓰기 훈련이 반복되어도 학습자들은 쓰기 과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고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는 창작 당시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텍스트에 형상화된 사건과 갈등 그리고 인물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그를 토대로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 또한 소설 텍스트가 비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고,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 된 세계를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설 텍스트를 읽는 일과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를 인식 하는 일은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이에 글을 쓰기 위한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첫 단계는 소설 텍스트 분석과 이해단계이다. 먼저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소설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의 독서 비평문을 살펴 본 결과 대상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돕기 위해 소설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찾아 기본 정보 읽기 지도안을 마련하였다. 그 다음 단계는 소설 텍스트의 수용과 전이단계이다. 소설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나의 삶 속에 끌어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읽고 무엇을 써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발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자기화하기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논리적 텍스트 생산 단계이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성과 논리성이 떨어진다. 근거를 제시할 때 패턴을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논리적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키는 주된 방법은 문단 구성 시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패턴을 사용하는데 중심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생성할 때 패턴을 활용한다.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을 학습자에게 적용한 결과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그 결과의 편차가 있었지만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소설 텍스트를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요약하기가 되지 않았던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하지 못하던 학습자들은 자기화하기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학습자들은 문단을 구성하고 패턴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만 패턴을 활용할 때 각 패턴의 기본 개념만으로는 패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각 패턴이 활용되는 예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주고 꾸준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읽고, 쓰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제공해 주고, 학습자는 그를 토대로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소통과 교사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성공적인 읽기와 쓰기 경험이 반복되어야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의 구조가 다소 복잡한 소설이나 상징성이 강한 소설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소설의 핵심 요소만으로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학습자들은 여러 사건과 갈등 중에서 중심사건과 주요 갈등을 분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단힌 결말의 경우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주요 갈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지도 하였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지도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위와 같은 소설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지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 3월 15일)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16년 5월 10일,
<http://ncic.re.kr/mobile.revise.board.list.do?degreeCd=RVG01&boardNo=1002>.
-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 (2016). 『 EBS 필독 중학 국어로 수능 잡기 비문학 읽기』. 고양: 한국교육방송공사.
- 권윤복. (2017).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교육의 양상과 문제점 : 2009년 개정 교육과정(2012. 12)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행,우한용,정병헌,윤여탁,김종철,김중신,김동환. (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이남렬,김중신,김동환,염은열. (2006). 『고등학교 논술』. 서울: 대한교과서(주).
- 김동환. (2004).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 _____. (2018). 『소설교육의 방법적 모색』. 서울: 월인.
- 김명순. (2004).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연구』, 11(0), 61-81.
- 김명순. (2008). “소설 감상문 지도 연구”. 목포대학교 국어국문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 (2008). 『어린이 글쓰기의 전략』. 파주: 들녘.
- 김상욱. (2008). 문학에 바탕을 둔 읽기/쓰기 통합의 방법과 의의. 『한국초등국어교육』, 38(0), 464-496.
- 김성진. (2012). 『문학비평과 소설교육』. 파주: 태학사.
- 김연주. (2013). 읽기와 쓰기의 통합 모형 연구 : <명저읽기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3), 461-482.

- 김우영. (2010). “논술과 연계한 독후 감상문 지도 방안: 독후 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지. (2013). “문학 작품을 활용한 통합형 논술 교육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4). “소설 읽기 능력 지도 방법 :사건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3). “인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발문 연구 : 시 수업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0). “문학 독서를 활용한 논설문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완. (2011). 『좋은 글 바르게 쓰기』. 고양: 지혜서가.
- 김태순. (2007).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문 쓰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13).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용어 변별 및 위계화 방향. 『새국어교육』, 96(0), 75-101.
- 김혜정. (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0), 141-180.
- 김화순. (2011). “마인드맵 독서전략을 활용한 국어 수업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영. (1986). 『현대소설론』. 서울: 문학사상사.
- 박영민, 이재기, 이수진, 박종임, 박찬홍. (2016). 『작문 교육론』. 서울: 역락.
- 박은영. (2010). “논리적 글쓰기에서 내용 조직과 표현의 양상 분석”.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2013). “요약하기 전략 학습을 통한 논술문 고쳐쓰기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아. (2008). “소설지도를 위한 질문 제시 방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기범. (2013). “논증 도식 및 반박 학습이 논증적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학년의 논증적 글쓰기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서울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편찬위원회. (2015). 『글쓰기의 기초』.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선주원, 박기범. (2010). 『현대소설 교육론』. 서울: 역락.
- 선주원. (2014). 『한국 현대 소설교육론』. 서울: 국학자료원.
- 성혜정. (2004). “소설 지도 방법 연구-작중 인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윤희. (2013). “근거 생성 전략을 적용한 논증적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경애. (2010). “문학논술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민. (2012). “문학작품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희. (2016).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108(0), 141-172.
- _____. (2016).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108(0), 141-172.에서 Williams, J. M. & Colomb, G. G.(2007), The craft of Argument, Pearson Education, Inc., publishing as Longman, 윤영삼 역(2008). 『논증의 탄생』. 서울:홍문관 pp.165-168 재인용.
- 연순임. (2011). “수행평가를 활용한 소설 읽기 지도 방법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리. (2018). “융복합 역량을 활용한 문학 기반 글쓰기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세환. (2015). 『결론부터 써라』. 서울: 미래의 창.
- 윤여정. (2005). “발문 교수법에 따른 시 교육 방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연. (2014). 대학 글쓰기에서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안 모색-설득 텍스트의 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6(0),

113-144.

- 이경아. (2015). “중학생 독서 감상문에 나타난 쓰기 오류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승. (2004).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11(0), 275-299.
- 이정화. (2011). “문단 쓰기 중심의 ‘전략적 개요 짜기’를 활용한 초등학교 논술지도 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호. (2001).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형래. (2006). 읽기 쓰기 통합 교수 학습 실행 연구 : 초등학교 5학년 말하기.듣기.쓰기, 읽기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1(0), 223-256.
- 이흥미. (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옥. (2009). “소설을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의 효과 : 등장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예. (2009). “마인드맵을 활용한 문장 표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쓰기 학습 부진아의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2013).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한 수업방법 탐색. 『사고와 표현』, 6(2), 35-56.
- 전옥경. (2005). “小説教育에서의 批評的글쓰기 適用方案”.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 (2009). “마인드맵을 활용한 과정중심 쓰기학습이 쓰기능력과 학습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선. (2010).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논술 양상 및 지도 방법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효정. (2006). 논증 구조 익히기를 통한 주장하는 글쓰기 지도 연구. 『어문학교육』, 32(0), 247-271.
- 채석용. (2011).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 서울: 원앤원북스.

- 채송화. (2009).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논술지도방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원진숙, 정혜승, 김봉순, 이경화, 전은주, 정현선, 주세형. (2016). 『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 사회평론.
- 최미혜. (2010). “문학 작품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기. (2012).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 학습 방안 탐색. 『독서연구』, 28(0), 111-141.
- 최시한. (2005). 『소설의 해석과 교육』.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5). 소설 읽기지도 방법의 모색-사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6(0), 469-508.
- _____. (2010).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윤희. (2015). 마인드맵과 토의 학습을 활용한 대학생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인문논총』, 38(0), 53-75.
- 최지원. (2008). “갈등 중심이 소설 읽기 지도방안”.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츠베탕 토도로프. 『담론의 장르』. 서울: 예림기획.
- 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4). 『현대소설론』. 서울: 평민사.
- 한성대학교 교재 편찬위원회. (2006). 『사고와 표현』.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 국외문헌

- 양경희. (2016).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108(0), 141-172.에서 Freeley, A. J. & Steinberg, D. L.(2013). *Argumentation and Debate*, 13th ed., MA:Cengage Learning. 재인용.
- 정용. (2009). “마인드맵을 활용한 과정중심 쓰기학습이 쓰기능력과 학습책략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7에서 Buzan, T. (1989). *Use your head*. London: BBC Books. 재인용.

ABSTRACT

Research to Improve Logical Expressiveness by Using Novel Text

Kim, Gyeong-Seon

Major in Korean Language&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rrange a measure to enhance the logical expressivenes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by making use of novel text. Logical expressiveness is an ability to express one's idea with valid reason, according to log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 is formed during the problem-solving process. As learners look at various situations around them critically, they can perceive the problematic situations, figure out the causes of the situations, and suggest solutions. By repeating this process, the ability to think logically can be improved. This kind of problem-solving capability is an essential content in study. Also, it is essential for learners to solve problems they will confront as they live their lives. As its importance increases, the importance of logical writing training keeps increasing, because of the conception that logical writing is effective to improve the

logical thinking ability.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 where learners can improve their logical expressiveness is not fully built in Korean education system. It's because of lack of teaching method as well as poor educational conditions where students cannot get constant writing education. Students are in hard situation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have active writing ability even though they cannot get enough writing education. To solve such problem, this thesis will introduce learning methods to increase the logical expressiveness of learners.

Before introducing learning methods, actual problems found in secondary school learners should be examined. This process is important to grasp the sort of difficulties students suffer in their writing process. It is not easy for them to take a closer look at social phenomena and perceive the problems. Also, it is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learner to experience every social phenomena. Novel is a reflection of reality. By reading novel text, students can indirectly experience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by doing so, get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Therefore, using novel text to approach problems of human being's life is an meaningful attemp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learners cannot grasp the basic information of novel text. Because of this problem, students cannot find problematic situations in novel text and they fail to produce accurate content in their writing. In addition, although they choose the subject of their writing, they cannot fully express their idea because they don't know expression method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introduced a instruction process which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novel text', 'acceptance and internalization of novel text', and 'production of logical text'. In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novel text level, by

applying novel reading education, learners analyze and understand contents of the novel text. Next, in acceptance and internalization of novel text level, by relating the contents with their own lives, learners internalize them and choose the subject of their writing. Finally, in production of logical text level, learners suggest their opinion in a paragraph form, and find grounds for their opinion from the novel text. In order to enhance the persuasive power of their writing, learners make use of some 'patterns'.

Unlike common essay education, which is concentrate on answering fixed questions, this method encourages learners to actively find problem, set up the subject by themselves, and arrange their own opinion and grounds. It is anticipated that by repeating this process, learner's logical expressiveness would be sharply improved.

【Keywords】 logical expressiveness, novel reading education, rhetorical writing, writing process, writing education, internalization, paragraph writing, demonstration methods, patterns